

中南美 經濟危機 現況과 對應方案

2002. 8

K O T R A

해외조사팀

목차

1. 중남미 경제위기 원인.....	1
2. 주요국별 경제위기 현황.....	2
3. IMF 및 선진국의 지원가능성.....	4
4. 중남미경제위기가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	5
5. 향후 전망.....	7
6. 우리의 대중남미 수출현황 분석 및 전망.....	9
7.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9
8. 중남미 주요국의 경제지표.....	13
<별첨> 국별 현황.....	15

1. 중남미 경제위기 원인

- 아르헨티나 외채지불정지 선언이 기폭제
 - 2001년말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에 따른 외채 모라토리움 선언 여파로 중남미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
 - 아르헨티나 경제위기로 남미경제의 절대적 영향력이 있는 브라질 해알화가 평가절하되고 경제위기가 중남미 전 국가로 확산
 - 여기에 베네수엘라의 불발 쿠데타, 페루의 폭동 등 중남미 특유의 정치 불안정 요소까지 가미하여 경제위기 심화
- 미국경제 침체에 따른 영향
 - 9.11 테러이후 미국 경제의 하강국면 진입과 회계부정 등으로 인한 증시침체, 그리고 미국경제회복 불투명 등으로 대외교역의 50%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중남미 각국 경제 위기 심화
 - 미국과 IMF가 위기에 처한 중남미 국가들에게 금융지원을 시의 적절하게 하지않아 경제위기를 악화시켰다는 시각도 있음
- 방만한 재정운영에 따른 재정적자 증가
 - 중남미국가 대부분이 GDP 대비 정부지출 및 부채규모 급증
- 외부적 충격에 취약한 경제 금융구조
 - 중남미국가 대부분이 대외신인도가 낮아 위기상황이 도래하면 투기성 자금이 동시에 빠져나가 위기를 악화 시키는 경향

○ 정치사회적 혼란

- 부정부패, 쿠데타, 정치적소요등 경제외적요인으로 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도가 저하되어 외국자본의 안정적 투자를 저해

2. 주요국별 경제위기 현황

○ 우루과이

- 지난 7월말 우루과이 정부는 외화부족을 이유로 모든 은행이 24시간 업무 중단을 발표하여 촉발된 우루과이 금융위기는 IMF의 총 38억불 지원합의와 15억불이 지원됨으로써 일단락.
- 제한적이지만 외화 인출이 허용되면서 상거래가 정상화되었으며 몬테비데오 시외곽을 중심으로 발생하였던 생필품 사재기, 슈퍼마켓 절도, 소요사태 등도 진정되었음
- 그러나 우루과이 폐소화의 약세로 인한 수입물품 가격상승으로 7월의 소비자물가 상승율은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4.9%를 기록하여 환율 및 물가 안정이 최우선 정책과제로 대두되었음
- Banco de Montevideo, Caja Obrera 등 부실은행에 대한 처리를 포함하여 재정긴축과 외환관리등 앞으로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뿐만아니라 기업이나 개인이 얼마나 정부 정책을 신뢰하느냐가 관건임

○ 아르헨티나

- 아시아 및 러시아의 금융위기 영향으로 지난 '9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아르헨티나 경기둔화는 '99년초 브라질 헤알화의 평가절하 이후부터 침체가 더욱 심화되었으며 이후 경제 활성화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여 국제금융권의 불신으로 경제위기를 겪게 되었음

- 계속된 정국 및 경제불안으로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하고 금리가 상승하여 대규모 자본유출등 상황이 악화되자 예금인출 억제 및 해외송금제한등을 골자로 하는 긴급조치가 내려졌으나 오히려 대량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하고 IMF는 작년 12월말로 예정되었던 12억 달러 차관 제공계획을 취소함으로써 더욱 곤경에 처하게 되었음

○ 브라질

- 1995년 남미공동시장 출범부터 1997년까지 연평균 3%의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던 브라질 경제는 1998년 금융위기가 시작 되면서 경제가 하강하여 1998년 0.2%, 1999년 0.8%, 2000년 4.5%, 2001년 1.5%로 2000년을 제외하고는 저성장세가 지속되었음.
- 미국에 이어 브라질의 제 2위 수출대상국인 아르헨티나에 대한 수출이 지난해 62억불에서 50억불로 20%나 감소한데이어 금년 1-4월 기간중에도 68%나 감소하였음.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에 따른 여파로 브라질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역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외국 금융기관들이 브라질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최근 좌파성향의 야당후보 당선 가능성 증가로 브라질 금융시장이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 브라질 경제가 갑자기 악화되었다기 보다는 야당후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향후 경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환율이 급등하고 있음.
- 헤알화 환율은 지난 7월26일 심리적 저항선인 3헤알을 넘어 말일에는 3.47헤알로 마감됐음. 브라질 중앙은행은 환율안정을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해 말일에는 약 3억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짐
- 이로써 헤알화 환율은 연초대비 50%나 상승했으며 국가위험도는 아르헨티나와 나이지리아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임. 그러나 주식시장의 경우 평가절하에 따른 수출업체들의 실적호전 전망에 따라 지난 7월말일 주가지수가 전일대비 5.16% 상승하기도하였음

○ 베네수엘라

- 베네수엘라 경제난 악화와 시민 폭동 그리고 차베스 대통령 축출을 위한 쿠데타 실패등 일련의 사태로 베네수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감소되고 평가절하와 인플레이 증가, 실업률 급등등 경제난이 계속되고 있음
- 현 정부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호의적이지 않아 현정부가 지속되는 한 경제난은 계속될 전망이다

○ 페루

- 후지모리 대통령 실각이후 경제난 악화, 치안불안, 게릴라준동등 사회불안이 증가하여 경제난이 해결되기는 당분간 어려운 상황임
- 톨레도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신뢰도는 비교적 높지만 주요 교역대상국인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경제가 어려워 페루 경제회복 역시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임

3. IMF 및 선진국의 지원가능성

○ 아르헨티나에 대한 IMF의 지원여부 곧 결정예정

- 아르헨티나는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 금융기관의 총 230억불에 달하는 구제금융이 필요하지만 IMF가 재정적자 80% 감축 등 위기 극복을위한 구체적 이고도 실현가능한 계획제출을 자금지원 협상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여 지원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음
- 최근 지방정부의 재정적자 60% 감축합의, 2002년도 예산안통과 등으로 IMF와의 협상이 개시되었으나 IMF의 본격적인 자금지원 협상이 성과없이 끝나 지원여부는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태임

- 미국 및 IMF의 브라질에 대한 금융지원 자세 전환 기대
 - 미국 및 IMF가 브라질에 대한 금융지원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신정부 출범이전에 막대한 구제금융 지원을 추진할 경우 리스크가 크고 브라질 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우루과이 등 인접국도 금융위기를 겪고 있다는데 있음
 - 브라질의 금융위기가 당초예상보다 심각해짐에 따라 브라질 정부 대표팀이 이미 미국에서 IMF측과 구제금융 협상을 시작했음
 - IMF가 브라질에 대한 추가 금융을 지원할 경우 연말 환율은 3.0 헤알 이하로 전망되나 IMF 지원이 기대에 못미치고 국제금융계의 과민반응이 지속되며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이 한계에 부딪칠 경우 브라질 금융위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음
- IMF, 우루과이 및 브라질에 대한 긍정적 자세
 - IMF도 아르헨티나, 브라질 및 우루과이의 경제난이 98년 아시아 위기처럼 역내에 연쇄반응을 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여 “우루과이는 현재 아르헨티나 경제위기 사태보다 잘 대응하고 있고 브라질의 경제운영 능력도 입증된 상태”라고 밝히고 있음.

4. 중남미 경제위기가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

- 멕시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적어
 - 멕시코의 경우 폐소화가 브라질 헤알화에 영향을 받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가지수는 미국 영향으로 금년 들어 최저를 기록
 - 멕시코는 남미보다는 미국영향하에 있기 때문에 남미국가들의 경제위기에 따른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아 환율을 비롯한 일부 금융시장의 동요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

- 칠레, 금융시장 및 경기부진에 영향
 - 칠레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및 우루과이의 경제 위기로 환율 및 주식시장 등 금융분야에 다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2002년 3월 이후부터 아르헨티나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했다고 평가
 - 신규투자 부진, 소비자들의 체감경기 악화에 따른 소비지출 둔화등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2002년에는 페루에 이어 두번째로, 2003년에는 제일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 파나마, 콜론자유무역지대 재수출에 큰 타격
 - 파나마는 남미 경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콜론 자유무역지역을 중심으로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뿐 아니라 콜롬비아 및 베네수엘라 정치위기 등으로 수출입에 상당한 영향을 받음
 - 2002년 6월말 현재 콜론자유무역지역의 수입은 20억1천2백만불, 재수출은 23억 7천 1백만불로 2001년 동기대비 11.3%, 6.5% 감소하였는데 남미국가의 경제회복 지연시 콜론에 큰 영향을 줄 것임
- 콜롬비아, 중남미위기설에 적극 대비
 - 콜롬비아는 아르헨티나의 채무상환중단선언, 우루과이의 은행업무중단 및 외화인출 및 송금제한등 일련의 사태로 중남미위기설이 확산되어 폐소화가 지속적으로 평가절하되고 있음
 - 중앙은행의 개입도 별 효력이 없자 정부에서는 경제정책 일순위는 '안정'임을 강조하면서 브라질, 우루과이 등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들의 경제위기 확산조짐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비하고 있음
- 베네수엘라, 내부분제가 보다 심각
 - 베네수엘라는 금년도 GDP 성장율을 -4.8%로 예상하고 하반기가 좀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러한 마이너스 경제성장은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 중남미 인근국가의 영향이라기보다는 내부분제로 인한 것으로 평가됨

- '99년 들어선 차베스 정부는 정치적인 기반을 공고화하기 위한 포퓰리즘(Populism) 정책의 남발과 재정적자 심화, 급격한 외환시장 자유화, 정치불안, 외국인투자 감소 등이 보다 큰 악재임
- 중미·카리비안 지역은 미국의 경기침체가 더 큰 영향
 - 도미니카공화국과 과테말라 등 중미 카리브지역국가들은 경제 및 금융권이 대부분 미국과 연계되어 있어 중남미 지역에서 발생한 금융불안 사태로 인한 특별한 영향은 받고 있지 않음
- 일부국가의 경제위기에 따른 타격보다는 심리위축이 중요
 - 중남미 경제전문가들은 객관적인 시장여건을 살펴봤을때 일부 국가의 경제위기로 역내 시장이 타격을 받고 있기 보다는 과민해져 있는 자국내 소비자/투자자의 위축된 심리 등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

5. 향후 전망

- 중남미 경제위기는 외채가 많은 경제구조상 세계경기변화에 따라 늘 주기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할 일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즉 중남미 경제는 금년에 싸이클의 최저점에 와 있으며 내년부터는 호전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이나 IMF 등 국제금융기관들이 중남미경제를 위기에 빠지도록 방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최근 IMF는 우루과이에 대해 즉각 15억\$의 자금을 지원키로하여 위기에 빠진 은행들을 정상화시키고, 브라질에 대해서도 300억\$의 자금지원을 약속한 바 있음.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신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지원 결정을 기다릴 가능성이 있음

- 중남미 국가들의 주요 수출품목인 원유를 비롯한 자원의 가격이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들 국가의 경제 회복에 도움을 줄 것임. 미국 경기가 문제이기는 하나, 미국경기가 예상보다는 회복 속도가 느리지만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 또한 내년부터는 중남미 경제를 끌어 올리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심각한 위기를 겪고있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와 베네수엘라는 경제 위기 상태가 내년까지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나, 다른 국가들은 조만간 침체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됨

주요국별 경제위기 지속 가능성

국명	가능성	비고
멕시코	매우낮음	건전한 재정정책운용, 외국인직접투자의 지속적 유입
브라질	낮음	IMF 금융지원(300억불), 건전한 거시경제정책 운용
아르헨티나	높음	정치불안 지속, IMF가 금융지원에 소극적
칠레	매우 낮음	건전한 재정정책운용, 외국인직접투자의 지속적 유입
베네수엘라	높음	정치불안 지속, 외국인직접투자 위축, 미국 등 외부지원 감소
우루과이	높음	아르헨티나 위기에 감염. 아르헨, 브라질의 경제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
페루	낮음	톨레도정부에 대한 미국의 지원
콜롬비아	불확실	경제가 정치적 변화에 취약, 최근 신정부의 비상사태 선언으로 불확실

6. 금년 상반기 우리의 대중남미 수출현황 분석 및 전망

- 금년 상반기 대중남미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9.9% 감소
 - 2002년도 상반기 대중남미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9.9% 감소한 44.4억불에 그치고 있으며 주요 11개국중 멕시코와 콜롬비아를 제외한 9개국이 전년대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

- 아르헨티나 수출감소율 91%
 - 최근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중남미국가들에 대한 수출은 국별로 34%에서 9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음

- 금년도 대중남미 총수출 10% 내외 감소전망
 - 우리나라의 금년도 대중남미 수출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 3개국의 금융 및 경제위기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외에도 칠레, 베네수엘라, 파나마 등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
 - 따라서, 대중남미 수출은 중남미 시장의 50% 내외를 차지하는 멕시코 시장에 대한 수출증가와 브라질의 경제회복이 관건임

7.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 위기 대처방안 >

- 지속적인 바이어 관리
 - 미국경기 회복의 부진과 남미경제권의 금융위기로 인해 수입수요가 감소되고 대미환율이 상승하여 대금결제가 지연되거나 일부는 오더까지 취소되는 사례가 있음.

- 따라서 바이어와 협조하여 금변사태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장기적으로 거래선을 유지해야할 것임. 즉 당장 오더는 없더라도 향후 거래가능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바이어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바이어와의 거래시 위험 최소화 노력

향후 바이어와의 거래시 외상거래 등 대금결제 방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신규 수출상당시는 바이어에 대한 신용상태 파악이 필수적이며 경제위기 지속 국가에 대해서는 가급적 외상거래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지시장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현지시장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 해나가야 경제 회복시의 시장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중남미는 전체적으로 국내산업이 미비하여 수입 수요가 큰 편이기 때문에 경제위기가 극복되면 바로 수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큼

○ 제3국 외환계좌 보유

금융위기 지속으로 주재국의 외환규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 투자진출업체의 경우 이에대한 예방책으로 보유자금을 현지은행보다는 3국에 보유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수출전략>

○ 중남미의 경제사이클을 고려한 진출전략 수립

중남미는 경제위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위기극복의 Know-how를 쌓지 않으면 중남미진출이 어렵음. 우리 기업들은 위기상황에서는 바로 철수를 했다가 위기가 극복되면 다시 진출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진출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또한 현지의 기반을 재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현지에서 위기에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함

○ 현지투자 생산법인의 경우 내수와 수출비율 적정 유지

현지투자 생산법인의 경우 내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수출에서 어느정도 만회할 수 있도록 하는 판매체제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수출품목의 전환

완제품 수출은 환율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기계류와 부품.소재 수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제위기시에는 중국산 등 저가품 수요가 많으므로, 현지에서의 브랜드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고가품 위주로 수출상품을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중남미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한국과 한국상품에 대한 이미지 홍보, 상품 브랜드 홍보 강화를 통해 고가품의 이미지를 심는데 다른지역 보다는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 현지 마케팅 활동 강화

중남미는 특성상 對面 비즈니스가 가장 효과적이다. 따라서 시장개척단 파견, 세일즈 출장 확대를 통한 직접적인 마케팅 활동이 보다 효과적인 진출전략이 될 수 있음

○ 현지 투자확대 및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추진

중남미국가들은 금융위기로 수입 위축과 수입규제 확대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수기업들을 중심으로 발전할 여지가 크다. 또한 심화되고 있는 중남미지역 경제블럭화 추세와 2005년 출범 예정인 범미주 자유무역협정(FTAA)을 감안시 앞으로 역내 교역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체결은 물론 멕시코와의 자유무역협정 등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8. 중남미 주요국의 경제지표

국가별	환율		외환보유고		수입동향(백만불,%)		*2002년 경제성장율
	2001말	변동율	2001말	증감액	2001말	증감율	
멕시코	9.1423	7.6% (02.8.5)	40,880	238 (02.7.31)	158,440	-3.57 (02.6.30)	1.0%
파나마	1	-	1,075	-	6,709.7	-	0.5%
브라질	2.41	24.9% (02.8.2)	35,870	3,430 (02.8.2)	55,580	-18.9 (02.7.31)	1.5%
과테말라	7.99	1.7% (02.6.30)	2,347	-62 (02.6.30)	5,607	-3.5 (02.6.30)	2.0%
칠레	643.94	9.4% (02.8.2)	14,400	800 (02.6.30)	16,412	-10.7 (02.5.31)	2.5%
베네수엘라	758	78.5% (02.6.30)	18,520	-338 (02.6.30)	17,390	-	-3.5%
콜롬비아	2,240.8	14.2% (02.7.31)	10,165	729 (02.7.24)	11,997	-	1.0%
페루	3.51	0.6% (02.6.30)	8,613	588 (02.6.30)	7,198	-12.5 (02.5.31)	3.0%
도미니카 (공)	16.97	4.6% (02.6.30)	940	-240 (02.6.30)	8,784	-2.6 (*02.3.31)	3.0%
우루과이	-	-	-	-	-	-	-5.0%
아르헨티나	1.0 (태환제 실시)	3.6 360% (02.8.5)	27,300	-18,300 (02.6.30)	20,300 (연간 9,743/ 상반기)	-63.6% (02년 상반기 3,544)	-13.5%
중남미전체	-	-	-	-	-	-	-0.8%

주 : 1. 환율변동율은 2001말 대비 최근환율의 변동율임

2. 외환보유 증감액은 2001말 대비 최근 외환보유고의 증감액임

3. 수입동향증감율은 전년 동기대비 최근 수입액의 증감율임

4. * 유엔 중남미경제협력위원회(CEPAL) 보고서 (2002.8월)

○ 우리나라의 대 중남미 주요국 수출실적

(단위 : 백만불)

국가별	2001년		2002(1-6월)	
	총수출액	전년비(%)	수출액	전년비(%)
멕시코	2,149	-10.1	1,149	4.3
파나마	1,719	37.9	715	-26.2
브라질	1,611	-6.5	674	-34.7
과테말라	471	-3.1	222	-9.9
칠레	573	-3.4	211	-35.9
베네수엘라	555	45.9	161	-32.6
콜롬비아	226	12.4	151	25.7
페루	188	-12.0	91	-4.4
도미니카(공)	131	-16.0	57	-28.4
우루과이	78	-43.4	20	-49.7
아르헨티나	302	-32.5	16	-91.4

첨부: 국별 현황

멕시코

1. 최근 경제동향

가. 환율

- 브라질 헤알(real)화 폭락에 영향을 받아 멕시코 페소화의 대미환율은 7월 중순 이후부터 8월 2일까지 상승세를 기록했으나 8월 5일(월) 현재 다시 소폭 하락세로 돌아섰음.

< 페소화의 대미환율 동향 >

(단위 : 1US\$ = 페소)

구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연말	연말	연말	1월	2월	3월	4월	5.31	6.7	6.14
환율	9.5143	9.5722	9.1423	9.1714	9.0815	9.0295	9.3196	9.6134	9.7345	9.7035
구분	2002년									
	6.21	6.28	7.5	7.12	7.19	7.26	7.31	8.1	8.2	8.5
환율	9.6983	9.9998	9.9670	9.8338	9.6468	9.7018	9.6944	9.7410	9.8769	9.8412

(자료원 : 멕시코 중앙은행)

나. 주가

- 상반기 멕시코 주식시장은 미국 주가의 영향을 받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었음.
- 8월 1일 멕시코 주가지수는 금년들어 최저치이자 심리노선인 6,000대를 깨고 5,755포인트를 기록했음. 이는 2/4분기 미국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훨씬 낮은 1.1%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멕시코 주식시장이 동요를 일으킨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멕시코 주가지수(IPC) 동향 >

구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1월	2월	3월	4월	5월31일
포인트	7,129.88	5,622.19	6,372.28	6,972.87	9,373.44	7,361.86	7,480.74	7,031.64
구분	2002년							
	6월7일	6월14일	6월21일	6월28일	7월5일	7월12일	7월19일	8월1일
포인트	6,857.42	6,720.37	6,502.97	6,460.95	6,462.83	6,400.42	6,336.95	5,755.89

다. 외환보유고

- 멕시코 외환보유고는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

< 멕시코 외환보유고 현황 >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억불	335.5	408.8	417.1	421.3	422.3	413.8	415.9	427.2	432.6

(자료원 : 멕시코 중앙은행)

라. 수출입동향

- 미국과의 교역량이 전체 80%이상을 차지하는 멕시코는 미국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수출입 모두 전년대비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음.

< 멕시코 수출입 동향 >

(단위 : 억불)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수출	1,744.6	1,684.0	115.9	119.2	131.0	144.4	139.2	132.0	n/a
수입	1,664.6	1,584.4	123.1	126.7	134.2	150.1	144.4	135.2	n/a
수지	-80	-99.6	-7.2	-7.4	-3.1	-5.7	-5.2	3.2	n/a

마. 금융권 동향

- 남미경제권 금융위기 및 미국경기 침체의 장기화 조짐에 따라 하반기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이 희미해지면서 금융권 역시 침체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동요하는 기색은 전혀 없음.

2. 경제위기 가능성

- 멕시코에 대한 JP Morgan 국가위험도는 7월 한달동안 20% 상승, 233포인트 기록.
- 멕시코 페소화는 브라질 헤알화에 영향을 받아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한편 주식시장은 미국의 영향을 받아 금년 들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음.
- 그러나 전체적으로 멕시코는 남미경제권이라기 보다는 미국경제권에 있기 때문에 금번 남미국가들의 경제위기에 따른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아 환율을 비롯하여 일부 금융시장의 동요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임.
 - 8월 5일(월)부터 페소화의 대미환율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 1불당 9.8412페소를 기록하였음.
(8월 2일 대미환율 1불당 9.8769페소)

3. 우리의 대멕시코 금년도 수출현황

- 금년 상반기 현재 대멕시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4.3% 상승한 11.5억불을 기록하였음.
- 금년말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3.28% 증가한 16.4억불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금년도 월별 수출동향을 살펴보면 1,2월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다가 플러스 성장세를 기록하였음. 그러나 6월 다시 -6.0% 하락세로 반전하였음.

< 대멕시코 수출현황 >

시기	금액(백만불)	증가율(%)
1999년	2,017	43.6
2000년	2,391	18.6
2001년	2,149	-10.1
2001년(1-6월)	1,149	4.3

(자료원 : KOTIS)

4.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속적인 바이어 관리
 - 최근 미국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남미경제권의 금융위기로 인해 멕시코 폐소화의 대미환율 상승으로 수입단가가 오르자 많은 바이어들의 경우 대금결제가 지연되거나 일부는 오더까지 취소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음.

- 따라서 바이어에 대한 일방적인 압력보다는 최대한 여유를 주면서 바이어와 협조하여 금변사태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장기적으로 거래선을 유지해야할 것임.
- 아울러 당장 오더는 없지만 향후 거래가능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바이어를 관리해줄 필요가 있음.

[2001년 주요 경제지표]

대미환율(1US\$=)	외환보유고(억US\$)	수입(백만\$)
9.1423	408.8	1,584

[수출실적]

(단위 : 백만불, %)

2001년		2002년 1~6월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2,149	-10.1	1,149	4.3

브라질

1. 최근경제 동향 및 전망

가. 최근 브라질 경제현황

○ GDP 성장률

- 금년도 브라질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당초 2.5% 성장에서 1.5-2.0% 성장으로 소폭 하향 조정됨
- 이는 10월 대선정국 불투명에 따른 투자 및 소비수요 위축, 환율인상 등에 따른 것으로 경기회복 시기도 당초 2분기전망에서 4분기로 늦춰짐
- 경기둔화현상은 가전제품, 자동차등 내구성소비재를 중심으로 판매부진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다시 주요산업의 근로자 해고현상으로 이어짐으로써 경기둔화의 악순환 구조를 보임

○ 금리

- 브라질 중앙은행은 10월 대선을 앞두고 중앙은행 콜금리를 금년 2월과 3월 0.25% 포인트를 각각 인하시킨데 이어 7월 17일에도 0.5% 포인트를 인하시킴으로써 콜금리가 연초 19.0%에서 18.0%로 인하됨

○ 환율

- 10월 대선정국 불안으로 6월부터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해 환율이 연초 2.32헤알에서 7월말에는 3.47헤알로 연초대비 50%가까이 인상됨
- 그러나 최근 IMF 추가 구제금융지원 가시화에 따라 환율이 하락하고 있음

- 향후 환율은 IMF의 구제금융지원여부, 대선여론조사결과 발표 및 대선정국에 따라 그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임
- 6월부터 환율이 불안조짐을 보이자 수입상들이 수입을 관망하거나 축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나.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사태 파급효과(전염여부 중심)

- 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 경제위기가 브라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며 따라서 양국 경제위기가 브라질로 확산 가능성은 적은 실정임
- 이는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가 메르코수르 회원국이나 브라질의 양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고 브라질의 경우 다국적기업들의 비중이 높고 시장잠재력과 경제기반이 상대적으로 높아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경제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지난해 브라질의 아르헨티나에 대한 수출은 50억불로 전체 수출의 8.5%에 불과하고, 우루과이에 대한 수출은 7억불로 1.1%에 그침.

다. 브라질 주요 경제지수동향

○ 환율(2002년도)

(단위 : US\$1=R\$1)

	1월말	2월말	3월말	4월말	5월말	6월말	7월말	8.2일
환율	2.41	2.34	2.32	2.36	2.52	2.84	3.47	3.01

○ 보베스빠지수 추이

(단위 : 포인트)

	7월 24일	7월 25일	7월 26일	7월 29일	7월 30일	7월 31일	8월 1일	8월 2일
보베스빠지수	9,937	9,665	9,217	9,240	9,341	9,762	9,759	9,852

○ 외환보유고 추이

(단위 : 억불)

	7월 24일	7월 25일	7월 26일	7월 29일	7월 30일	7월 31일	8월 1일	8월 2일
순외환보유고	401.4	400.2	397.4	395.8	392.3	389.2	390.2	393.2

○ 수출입 추이

(단위 : 백만불,%)

	2000년		2001년		2002(1-7)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55,086	14.7	58,223	5.7	31,275	-7.7
수입	55,816	13.3	55,580	-0.4	27,472	-18.9
수지	-730		2,643		3,803	

라. 주재국 금융권 움직임

○ 환율

- 브라질 금융불안의 핵심은 환율불안이라고 할수 있음
- 환율이 금년초 2.3-2.4헤알선에서 안정세를 보였으나 6월부터 급등세를 보임
- 환율은 년초 2.32헤알에서 7월말에는 3.47헤알로 50% 가까이 급등함

○ 주식시장

- 주식시장의 경우 외환시장에 비해 금융불안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있음
- 이는 브라질의 주식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고 환율급등으로 업체들의 수익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외환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임

마. 주재국 경제 불안요인 분석 (경제위기 가능성 포함)

○ 10월대선정국 불투명

- 브라질 금융불안의 최대요소는 10월 대선에서 좌파성향의 야당후보인 노동당(PT)의 룰라후보와 사회민주당(PPS)의 시로 고메스 후보의 당선가능성이 높은데 따른 것임
- 즉, 국제금융계에서는 좌파 야당후보가 당선될 경우 공공부채 증가 및 채무상환불이행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

○ 공공부채 증가

- 금년 6월말 현재 브라질의 공공부채는 7,500억헤알(약 2,500억불)로 총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6%에 달함
- 이는 페르난도 엔리끼 대통령이 취임한 '95년 1월의 30%에 비해 두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임

○ 경제위기 가능성

- 환율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경제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은 적음
- 이는 최근 미국과 IMF의 대브라질 지원의지가 강함이 확인됨으로써 구제금융지원 가능성이 높고, 최근 브라질의 금융불안이 경제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10월 대선정국 불투명에 따른 정치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10월 대선이후 금융시장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음

바. 대주재국 수출현황 및 대책

- 금년 6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34.7% 감소한 6억 7천만불이며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26.4% 증가한 5억

8천만불을 보임

- 대브라질 수출이 부진한 이유는 환율급등에 따른 수입수요 위축 및 경기둔화에 따른 현상임
- 현지 주요기업들과 바이어들이 10월 대선이후 주요 투자계획 및 구매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업체들이 많아 환율이 안정되고 정국불안이 해소될 경우 10월대선이후 수입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아직 환율이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외상거래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바이어 신용상태 점검 및 수출보험부보등 보다 안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사. 우리의 대응방안 (우리 기업이 주의할점, 월드컵 활용방안 등)

- 브라질의 금융불안은 10월 대선정국 불안에 따른 것이며 조만간 IMF 구제금융 지원이 발표될 경우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음
- 이와관련 브라질 금융불안을 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 금융위기와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함
 - 따라서 브라질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틈새시장 공략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실정임.

2. 남미 경제위기 원인분석과 향후 전망

가. 아르헨티나,브라질,우루과이 등 MERCOSUR를 종합적으로 조망

- 아르헨티나,우루과이 경제위기가 브라질에 미치는 영향은 적어
 - 우루과이가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큰데 따른 것임

- 즉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경기둔화 및 환율인상으로 수입수요가 감소하자 경제에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볼수 있음
- 그러나 브라질의 경우 지난해 아르헨티나에 대한 수출이 50억불로 전체 수출의 8.5%에 불과하고, 우루과이에 대한 수출은 7억불로 1.1%에 그치고 있어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경제위기가 브라질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실정임
- 즉 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 경제위기가 브라질로 전파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단, 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 등 인근국 경제위기로 인해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이 줄어드는 것은 간접적인 영향으로 볼수 있음

○ 남미경제권에 대한 불신이 문제

- 국제금융계는 최근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의 좌파 정권탄생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 즉 좌파정권 탄생시 '90년대부터 추진되어온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시장개방 및 민영화 등 시장경제체제가 후퇴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남미경제권에 대해 우려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브라질의 경우 야당 후보들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야당후보들의 경제정책방향이 현정부 경제정책과 유사한 부분이 많고, 연립정부 구성이 불가피해 현재의 경제정책상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분석됨.

나. 향후 추이

- 브라질의 경우 IMF 구제금융지원이 결정될 경우 금융불안은 진정될 것으로 보이며, 10월 대선이후 정국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 등 인접국의 경제위기가 브라질로 확대될 가능성은 많지 않음

- 현재 향후 브라질 금융시장불안 지속 및 경제위기로의 확산 여부는 주로 IMF 구제금융 지원여부와 10월대선정국 추이 등 2가지 요소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그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에대한 관심과 함께 추이점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아르헨티나

1. 최근 경제 동향 및 전망

□ 총괄

-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12월 은행예금 동결 조치로 비롯된 사회적 소요 사태와 정치적 혼란을 겪고 연초에 디폴트를 선언한지 이미 7개월이 지나고 있음. 폐소화 평가절하를 단행하고 재정 긴축에 들어갔지만 경제위기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 1/4분기 경제성장률은 -16.5%로 나타났으며 실업률은 25%에 다다르고 있고 3,600만 인구의 절반이 빈민층으로 몰락하고 있음.
- 아르헨티나 산업이 45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금년 3월 성적이 전년 동기 대비는 물론 금년 2월보다도 더 떨어졌다는 국립통계원(INDEC) 발표와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전년도의 -4.5%를 훨씬 밑도는 -8% 내지 -10%이하까지 하락, 경제가 크게 퇴보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금년도 아르헨티나시장은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됨.
 - 50~60%대에 달하는 고금리나 25%의 실업률도 산업생산의 위축으로 연결되고, 이는 결국 수입시장의 회복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
-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금융지원 외에는 해결방안이 없다고 보고 미국과 IMF에 매달리고 있지만 IMF에서는 오히려 아르헨티나 스스로 자구 방안과 경제성장 플랜을 보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좀처럼 지원에 나서지 않고 있음. 게다가 정치권 불안정 요소 때문에 내년 3월 예정된 대통령 선거전까지는 국제금융계로부터의 적극적 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주요 경제지표별 동향

○ 환율

페소화의 대미달러화 환율 급등세 지속

일자	01.12.1	02.1.11	2.28	3.27	4.30	5.31	6.27
환율(매도율) (US\$1=페소)	1.0	1.75	2.2	2.92	3.02	3.32	3.9

주 : 8월 들어서 환율은 3.5-3.7선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 물가

2002년 4월 인플레이가 10.4%로 공식 집계되어, 10년이래 처음으로 두 자리수 기록. 인플레이에 가속이 붙으면서 올해 연간 인플레이가 최소 90%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옴. 5월 인플레이는 4%로 집계되어 1-5월 인플레이 누계는 25.9% 기록

○ 실업률

- 금년 5월 기준 실업률은 25.2%에 달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3백60만 명의 실업자 발생
- 지금까지 아르헨의 실업률 역대최고 공식집계치인 멕시코 테킬라 사태 발발 당시(94년)의 18.4%를 훨씬 상회
- 경제가 10% 후퇴할 때 실업률은 5% 꼴로 상승
올해 아르헨이 12~13%의 마이너스 성장 기록 전망이어서 최악의 경우 실업률이 30%선 돌파 우려
- 2002년도 1/4분기에만 실업자 28만여명 양산

□ 경제전망

- 현재의 아르헨티나 경제침체 상황은 일시적 현상이기보다는 정치 및 경제부문에서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기인한 것으로서 단시일내에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 회복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임.
- 국제금융권의 대아르헨티나 불신감 뿐만아니라 두알데 정권에 대한 아르헨티나 국민의 신뢰도 또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서 경제회복을 위해 한달이 멀다하고 발표되는 새로운 경제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가운데 기업들에게 오히려 혼란만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 실정임.
- 아르헨티나 정부와 IMF간 협상결과에 따른 추가자금지원 성사 여부, 국민들의 시위사태를 촉발시키고 있는 예금인출 제한조치의 해결방향 등 현안들이 어떻게 그 매듭을 풀어가느냐에 따라 금년도 아르헨티나 경제의 명암이 갈릴 것으로 전망됨.

2. 대외교역 현황

- 2000년도 무역수지도 '99년도처럼 수입감소에 의한 적자폭이 줄어드는 양상과 대 브라질 수출 회복세에 따라 약 12억불의 흑자로 반전되었으며, 2001년에는 흑자가 60억불을 상회함.
- 2001년도 수입은 2000년에 비해 20%가 하락한 203억달러로 나타났으며, 작년 12월 한달동안에만 수입이 55%가 격감한데 이어 금년 1-5월중에는 수입감소율이 무려 64%를 기록(35억불)하는 등 수입시장 붕괴우려 현실화.
- 수출은 2001년의 경우 연간으로 1%가 늘어났으나 12월에는 19%나 줄어들었고, 올해에도 축소기조가 이어져 2001년의 267억달러에서 2002년에는 250억달러로 6%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2002.1-5월 구출은 102억불을 기록, -6%의 감소율을 보임.

- MERCOSUR (남미 공동시장) 역내교역도 크게 위축돼 비록 아르헨티나가 16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긴 했으나, 2001년도 아르헨티나의 대 메르코수르 수입은 18%가 하락했고 수출은 11% 하락했으며, 더욱이 12월 한달간 수출은 37% 급감한데 비해 수입은 무려 60%나 격감해 붕괴조짐을 보임.
- 이렇게 아르헨티나시장이 급속도로 축소되고 있는 것은 작년 12월 1일 발표된 일명 '꼬랄리또' (Corralito)로 불리는 예금인출 제한조치와 더불어 해외송금 제한조치 및 후속 달러예금 동결조치 등이 최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소비자 구매력 감퇴와 더불어 금년 1월7일의 태환제 폐지 및 폐소화 평가절하까지 겹친 데다가 금년 2월12일 발동된 강제 외상수입 제도도 시장을 더욱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아르헨티나 시장구조상 높은 수입의존도와 시장재고 바닥으로 인한 컴퓨터 액세서리, 일회용 기저귀 및 치약 등 일부 수입상품 브랜드의 품귀현상과 더불어 기자재 및 원부자재 등 수출산업용 필수 수입수요로 인해 수입은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외화유동성 부족에 따른 은행들의 연쇄파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각종 규제책과 빈번한 정책 변경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L/C 개설 회피 등 극히 수세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금융권의 어려운 입장과 맞물려 수입시장은 고사 위기를 맞고 있음.
- 그러나 물가가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아르헨 정부는 인플레이를 잡고자 3월21일부로 섬유류, 전자제품, 신발류 등 국민생활에 긴요한 소비재 1,500개품목에 대해 수입관세 인하조치를 단행, 종전의 28%에서 품목별로 12.5-22.5%로 인하되어 평균관세율은 18-20%를 기록하게 되는 등 수입 시장이 제한적 범위내에서 어느정도 활력을 되찾게 될 것으로 보임.
- 2001년도 무역수지 흑자 시현의 요인으로는 내수침체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와 12월의 예금인출제한 및 해외송금제한조치 등에 따라 수입시장이 마비된데다 기업들이 해외로 판로를 개척하고 생존차원에서 자금확보차 생산원가 수준으로 수출에 나서는 기업이 늘어났기 때문이며, 기타 곡물 및 원유 등의 수출가 상승도 이에 기여.

무역수지 동향

(단위 : US\$백만)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1-5
수출	26,430	26,441	23,333	26,410	26,645	10,194
수입	30,450	31,404	25,508	25,243	20,311	3,545
수지	-4,020	-4,963	-2,175	1,167	6,334	6,649

자료원 : 아르헨티나 국립통계원(INDEC)

3. 우리의 대 아르헨티나 수출현황

< 교역 규모 및 무역수지 추이 >

(단위 : US\$백만)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1-5	증감률
수출	630	584	439	448	302	13.6	-91%
수입	253	126	163	191	374	116.5	321%
수지	377	458	276	257	-72	-102.9	

* 자료원 : KOTIS

- 우리나라의 대아르헨티나 수출은 '97년도에 6억3천만불을 정점으로 하여 현지 경제침체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인해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음. 2001년도에는 3억2백만불을 기록하였으며, 2002년도 1-5월 들어서는 전년동기대비 91%나 감소함.
- 아르헨 통계 기준, 2002년1-5월 기간중 아르헨의 대한국 수입액이 3천만불을 기록, 아르헨시장내 위치가 2001년 12위에서 14위로 밀림

- 일본은 6위에서 7위(98백만불)로 내려앉았으며, 중국은 3위에서 6위(105백만불)로 가라앉는 등 아시아권의 아르헨 시장 점유율이 약화되고 있음.
- 주종 수출품목으로는 2000년의 경우 전자제품(가전 및 산전) 및 전자부품과 자동차 및 직물, 일반기계류 등 6대품목이 74%를 점했으며, 2001년의 경우 가전제품이 5,600만불, 전자부품이 4천만불, 자동차가 3,600만불, 일반기계가 3천만불, 유기화학품이 2,800만불, 직물이 2,400만불, 산업용 전자가 2천만불, 철강제품이 1,900만불을 각각 기록, 8대품목이 84%를 점하고 있는데, 전자부품(+13%) 및 철강제품(+78%) 이외에는 모두 큰 폭의 하락세(가전 -40%, 자동차 -34%, 직물 -48%, 산전 -67%, 일반기계 -26%)를 보였으며, 유기화학품은 전년수준을 유지함.
 - 그러나 2002년에 들어와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이 모두 큰 퇴조를 보이고 있으며, 전선이나 합성수지, 귀금속 장식품, 의약품 등이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음.
- 2001년도 한.아 교역상 최대 특징은 한국이 계속 일방적 무역흑자를 견지해오다가 2001년에 적자로 반전된 점인데, 그 원인은 수출이 30%이상 급감하고 수입이 100% 가까이 폭증했기 때문임.
 - 특히 2002년 들어 우리나라의 대아 수입증가폭은 300%대에 이르고 있어 무역역조가 심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대아르헨티나 주요 수출품목 >

(단위 : US\$천, %)

순위	품목코드 (MTI)	품목명	2000년		2001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729990	텔레비전부분품	21,542	25.2	30,064	39.6
2	841100	승용차	36,733	43.2	23,824	-35.1
3	815100	공기조절기	17,794	210	16,970	-4.6
4	733130	에어컨	4,211	-42.2	15,085	258.2
5	111315	폴리에스테르수지	9,329	253.2	14,734	57.9
6	434200	폴리에스텔직물	23,304	-26.3	13,776	-40.9
7	614310	냉연강판	43	-	10,328	23,956
8	731100	칼라TV	38,566	-6.9	9,755	-74.7
9	222000	타이어 및 튜브	18,056	7.3	8,924	-50.6
10	712130	휴대용 전화기	44,522	686.4	8,803	-80.2
11	732900	기타의음향기기부분품	10,790	522.3	7,646	-26.1
12	722110	천연색 음극선관	10,275	-33.5	7,269	-29.3
13	841200	상용차	10,030	-33.9	7,016	-30
14	436000	편직물	13,433	0.6	6,308	-53
15	732200	라디오카세트	7,107	16.9	5,801	-18.4

자료: KOTIS

4.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 아르헨티나 정부는 물가가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인플레이를 잡고자 3월21일부로 섬유류, 전자제품, 신발류 등 국민생활에 긴요한 소비재 1,500개품목에 대해 수입관세 인하조치를 단행하는 등 불요불급한 공산품은 어쩔수 없이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조달물품 입찰에 관심을 가져야 함

- 경제회복이 본격화되어 현지의 수입수요가 늘어날 때를 대비하여 바이어 등 현지 시장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 바람직
 - 아르헨티나의 전체적인 교역조건의 틀이 흔들림에 따라 기존 거래파트너로부터 이탈하여 새로운 공급선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의 입장에서라도 기존거래선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Corres를 통해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바이어의 이탈을 예방하고 아울러 여타 경쟁국에서 이탈되는 신규 거래선의 확보를 위한 거래제의도 병행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신규 수입상과 수출 상담시는 수입상에 대한 신용상태 파악이 필수적임

칠 레

1. 아르헨티나,우루과이 사태 파급효과

- 칠레는 산업화 추진을 위한 중간재, 자본재수입을 장려하는 한편, 칠레는 100% 시장을 개방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나라임. 즉, 여타 중남미지역 국가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투자여건 조성 등으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있음.

대칠레 외국인 직접투자현황(실질투자기준)

(단위:백만불)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증감률 (2001/2000)
투자액	6,105.5	6,512.1	9,774.4	3,735.6	4,733.5	26.7%

- 칠레는 또한, 전체 수출품목 중 80%가 제3의 시장으로 전환될 수 있는 품목이며 중남미 국가에 특별히 의존하고 있는 경제구조를 갖고 있지 않음. 따라서, 칠레 중앙은행의 국제경제조사국장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일부 중남미 국가의 경제위기가 자국의 무역 및 기타 비즈니스 분야에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칠레 정부의 무역정책기조는 자유시장 개방원칙을 견지하면서, 세계 각국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 및 지역그룹(Mercosur 등)과 통상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최근, EU와의 FTA체결한 상태며 한국,미국과 추진중인 FTA협상도 곧 타결될 것으로 기대돼, 중남미지역 이외의 제3 시장으로의 수출활로를 적극 모색하고 있음.

- 최근, 미국에서 TPA(Trade Promotion Authority)가 통과되어 Bush 대통령에게 칠레와의 조속한 FTA체결을 추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
- 칠레 국내 안팎의 경기 침체, 내수 감소 등으로 인해 칠레의 2001년 경제성장률이 3%로 2000년 5.4% 성장보다 미흡하고 또한, 2002년 상반기 중 성장률도 1.6%로 지속적인 경기부진을 보이고 있으나 여타 중남미 국가보다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아르헨티나/브라질 경제위기, 칠레기업의 신규투자 확대관망세, 소비자들의 체감경기 악화에 따른 소비지출 둔화 등에 기인.
 - 2002년에는 중남미권에서 페루에 이어 두번째로, 2003년에는 1위로,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경제성장률 전망

국가	2002	2003
페루	3.6	4.1
칠레	2.7	4.7
브라질	1.9	3.6
콜롬비아	1.7	3.2
멕시코	1.6	4.3
베네주엘라	-4.0	1.0
아르헨티나	-12.3	-0.4

자료원 : The Economist(2002)

- 다만, 칠레의 경우 아르헨티나, 브라질 및 우루과이의 경제 위기로 환율 및 주식시장 등 금융분야에 다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칠레 경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칠레시장이 작년 하반기 아르헨티나 사태로, 칠레의 경제가 환율, 주식시장 등에 일시적인 영향은 받았으나 2002년 3월이후부터 칠레경제는 아르헨티나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데 성공했다고 함. 그러나, 칠레 주식시장의 경우 금년도 브라질 및 우루과이의 금융위기로 재차 동요하고 있는 등 동 분야에 간접적인 영향은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칠레경제전문가들은 칠레 경제구조 특성상 중남미 지역에 의존하고 있는 시장은 아니며, 여타 중남미 국가보다 양호한 경제성장, 외환보유고, 유럽 등지로의 수출시장 확대, 외국인 투자 증가 등으로 중남미지역의 위기가 전염될 가능성은 배제하고 있음.
- IMF도 아르헨티나, 브라질 및 우루과이의 경제난이 98년 아시아 위기 처럼 역내에 연쇄적 충격을 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우루과이는 현재 아르헨티나 경제위기 사태보다 잘 대응하고 있다"며 "브라질의 경제운영 능력도 입증된 상태"라고 밝히고 있음.
- 중남미 경제전문가들에 의하면, 객관적인 시장여건을 살펴봤을 때 긍정적으로 일부 국가의 경제위기로 역내 시장이 타격을 받고 있기보다는 과민해져 있는 자국내 소비자/투자자의 위축된 심리 등이 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음.

2. 칠레 주요 경제지수 동향

가. 환율

- 페소화가 7월과 8월 현재 달러당 700페소선을 돌파, 3.2% 절하평가 되어 8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 우루과이 금융시장 휴일연장과 브라질의 헤알화 평가절하에 따른 영향으로 경제전문가들은 브라질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달러당 최고 712페소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칠레의 경우 환율변동과 관련 정부차원에서의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하고 있음. 칠레의 외환시장이 인근 국가의 금융위기로 일시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나 현재 상태에서는 외환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허용할 방침.

대미환율 변동 추이

구분	평균 환율(페소)
1999	508.78
2000	539.49
2001	643.94
2002.1	667.28
2002.2	678.84
2002.3	663.26
2002.4	650.82
2002.5	653.91
2002.6	697.62
2002.7	700.987
2002.8.1	703.57
2002.8.2	704.36

나. 주가

- 최근 미국의 WorldCom, Enron 등의 회계조작사건, 칠레의 내수시장 침체 및 당초 전망되었던 3% 칠레 경제성장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그리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등의 경제위기로 인해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매도세가 두드러지고 있음.

- 특히 7월에는 주식시장 고전.
 - 칠레 주식시세(IPSA)는 지난 7월23일에는 올해 들어 가장 낮은 79.85를 기록하였으며, 2002년 상반기 중 주식시세는 17.6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7월중 주식 거래실적은 18억불을 상회하고 있으나 6월보다는 30% 감소한 거래임. 국내 투자자의 투자 심리 위축, 대부분의 외국 투자자 한국 등 견실한 경제를 보이고 있는 아시아지역으로 투자를 전환하고 있어 주식 가격의 하락을 초래, 연초에 100포인트에세 최근에 70선까지 하락함.

- 최근 미국의 TPA법안 통과로 칠레-미국간 FTA 체결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칠레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증가 할 것으로 기대되며 현 상황에서 우루과이 금융위기의 영향 자체는 매우 적을 것으로 보임.

주가지수 변동 추이

1999	2000	2001	2002.1	2002.3	2002.5	2002.6
122.45	99.05	105.46	97.80	99.98	95.57	89.71

다. 외환보유고

칠레중앙은행은 적극적으로 시장 개입을 자제하고 있으며, 현재 외환보유고는 152억불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외환보유고

(단위 : 억불)

2000	2001	2002.1	2002.3	2002.5	2002.6
151	144	142	141	151	152

라. 수출입추이

- 96~98년 무역수지 적자에서 99년부터 흑자기조 유지

칠레의 수출입 추이

(단위:백만불)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1-5)	증감률
수출	17,902	16,353	17,194	19,246	18,505	7,895	-7.8%
수입	19,298	18,363	14,735	17,091	16,412	6,355	-10.7%
무역수지	-1,396	-2,010	2,458	2,154	2,094	1,540	5.8%

○ 수출동향

- 전년동기대비 7.8% 감소한 7,895백만불
- 수출증가지역 : 오세아니아(21.8% 증가), 북미(4.5% 증가)
- 수출감소지역 : 유럽(14.2% 감소), 중남미(13.5% 감소), 아시아(8.6% 감소), 아프리카(36.1% 감소)
- 구리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4.7% 감소한 2,631백만불

○ 수입 동향

- 1~5월기간중 전년동기대비 10.7% 감소한 6,355백만불
- 수입증가지역 : 오세아니아(26.4% 증가)
- 수입감소지역 : 북미(18.2% 감소), 중남미(11.1% 감소), 유럽(7.5% 감소), 아시아(7.5% 감소), 아프리카(59.5% 감소)
- 소비재수입 전년동기대비 8.6% 감소. 중간재(원유포함) 수입 13.8% 감소. 자본재 수입 10.1% 감소.

3. 칠레 금융권 움직임

○ 칠레 중앙은행은 2002년도에 5차에 걸쳐 이자율을 인하.

- 2월 6.0%→5.5%, 3월 5.5%→4.75%, 5월 4.75%→4.0%, 7월4일 4.0%→3.91%, 7월11일 3.91%→3.25%

○ 칠레의 경제는 5차에 걸친 이자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경제위기가 중남미 지역 전체로 확산될 것이란 우려로 인해 경기부양 효과를 보지 못함.

○ 그러나, 칠레 정부가 2001년10월과 7월 3째 주에 발행한 국채가 외국 투자자에게 성공적으로 매도되는 등, 외국 투자자들의 중남미 지역에 대한 투자가 향후 경제 전망이 양호한 칠레 등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선별투자를 할 것으로 보임.

4. 칠레 경제 불안요인 분석

- 칠레 경제가 당초 전망치인 3%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고 있어 최근 칠레 중앙은행은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다소 조정 할 것으로 예상됨.
- 칠레도 여타 중남미국가와 마찬가지로 미국경제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가 내년에도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을 경우 아르헨티나부터 시작된 중남미지역 경제위기가 역내 국가 전체로 확산될 위험은 존재함. 그러나, 최근 발표에 의하면 미국 경제가 2002년에 2.8%, 2003년에는 3.5%까지 성장 할 것으로 전망되고, 아르헨티나 위기도 바닥을 친 뒤 반전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악의 상황까지 치달을 것으로 보이지 않음.

5. 한국의 대칠레 수출현황

가. 수출현황

- 한국의 IMF 사태 및 칠레경기침체로 98년, 99년 양국간 교역량이 감소. 2000년에 들어 잠시 회복세를 보이다가 2001년부터 2002년 5월까지 교역량 다시 감소세.
- 한국의 대칠레 수출은 칠레경기의 침체로 2001년부터 다시 감소추세로 전환되었으며, 2002년 5월말 현재 대칠레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32.2%나 감소하였음.

칠레의 10대 수입대상국

(단위: 백만불)

순위	국명	2000	2001	02(1-5)	비중(%)
1	아르헨티나	2,628	2,755	1,089	17.1
2	미국	3,093	2,673	978	15.4
3	브라질	1,230	1,372	537	8.5
4	중국	871	934	390	6.1
5	독일	566	644	275	4.3
6	프랑스	415	539	227	3.6
7	일본	656	510	201	3.2
8	한국	487	491	186	2.9
9	멕시코	574	498	166	2.6
10	스페인	393	427	158	2.5
총수입액		17,091	16,412	6,355	-

- 2002년 1~5월 기간중 우리나라의 대칠레 수출은 181백만불로 전년동기 대비 32.2% 감소
- 수출호조품목(2002.1-5월 기간)
 - 컬러 TV(6,497천불, 89% 증가), 편직물(3,723천불, 44% 증가), 봉강(3,018천불, 1,925% 증가), 도금강판(2,023천불, 479% 증가), 비디오카메라(999천불, 40% 증가), 냉연강판(988천불, 34,598% 증가), 컴퓨터(813천불, 59% 증가), 인쇄용지(706천불, 23% 증가) 정밀화학원료(384천불, 23% 증가), 계측기(359천불, 54% 증가), 필름류(330천불, 45% 증가), 유선교환기(291천불, 92% 증가), 사료(228천불, 405% 증가), 의료용전자기기(193천불, 117% 증가), 오디오테이프 및 레코드(184천불, 4,654% 증가), 발전기(157천불, 98% 증가), 건전지(154천불)

- 수출부진품목(2002.1-5월 기간)
 - 승용차(37,961천불, 32% 감소), 휴대폰(23,544천불, 34% 감소),
 - 화물자동차(13,589천불, 35% 감소), 합성수지(12,946천불, 32% 감소), 폴리에스터직물(6,875천불, 44% 감소),
 - 타이어(3,922천불, 25% 감소), 축전지(2,494천불, 20% 감소),
 - 철강관(1,518천불, 75% 감소), 건설중장비(1,333천불, 72% 감소),
 - 전선(1,093천불, 31% 감소), 에어컨(1,009천불, 26% 감소),
 - 편직제의류(698천불, 31% 감소), 플라스틱깎개(661천불, 26% 감소), 엘리베이터(569천불, 22% 감소), 타이어튜브(491천불, 33% 감소), 폴리에스터단섬유직물(436천불, 60% 감소),
 - 재생단섬유직물(387천불, 48% 감소), 직물제의류(333천불, 31% 감소), 순면직물(278천불, 45% 감소), 나일론직물(276천불, 67% 감소), 철구조물(233천불, 80% 감소)

나. 주종품목별 대칠레 수출현황

- 자동차
 - 2002년 상반기 한국산 자동차 수출 및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감소.
 - 2002년 상반기 중 칠레 경기 침체로 한국산 자동차의 수출 및 판매 감소 요인이 많았으나, 예상보다는 감소폭이 적었음.
 - 그 이유는 2002년 상반기 칠레 페소의 대미불환율을 670페소선으로 예상하고 FOB수출가격 및 현지 소비자판매가격이 설정되었으나, 환율이 650선에서 안정되었기 때문에 현지 딜러들이 수익성 악화없이 환차익만큼 할인판매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임.
 - 현지 자동차 딜러들의 수입대금 결제가 통상 선적후 2-5개월 지급인데, MERCOSUR 사태로 인해 7월말부터 대미불 환율이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8월 대금결제분부터는 수입대금결제 압박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

- 현재 한국산 자동차 딜러들은 상반기중 대규모로 실시했던 할인행사를 모두 중단한 상태이며, 환율상승분을 일부 흡수하기 위해 9-10월중 판매가격을 인상할 움직임.
- 판매가격이 인상될 경우 칠레 경기침체와 더불어 판매량은 더욱 감소하고 이에 따라 수출물량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원화의 대미불 환율 상승으로 FOB 수출가격에 있어 인상요인이 있으나, 칠레페소화의 대미불 환율 하락 및 경기침체로 인해 수출가격을 인하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한국 자동차 수출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

○ 휴대폰

- 한국수출통계상 2002년 상반기중 대칠레 휴대폰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감소. 통계상 감소요인은 주력 브랜드인 LG 휴대폰의 경우 브라질 공장에서 생산되는 휴대폰의 대칠레 수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2002년 상반기 환율을 670페소로 예상하고 FOB가격 및 현지 판매가격이 책정되었는데, 상반기 환율이 650페소선에서 안정되었기 때문에 현지 딜러들의 수익성 악화없이 마케팅활동이 진행되어 삼성, LG등 한국 브랜드 휴대폰의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오히려 증가하였음.
- 원화 강세로 수출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휴대폰 수출마진률이 높기 때문에 원화의 대미불 환율 인상효과를 수출가격에 반영하지 않아도 휴대폰 수출 수익성에 별 문제는 없음.
- 기존 CDMA 휴대폰외에 신규로 TDMA 휴대폰도 수출예정이어서 칠레 경기 및 환율불안과는 상관없이 한국 브랜드 휴대폰 수출 및 판매는 지속 증가 전망.

○ 가전

- 한국통계상 대칠레 가전제품 수출은 감소하였음에도 삼성, LG, 대우 등 3개 주력 브랜드의 현지 매출은 금년 상반기 중 전년동기대비 증가하였는데, 이는 한국산 브랜드의 멕시코 공장 선적분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한국으로부터의 선적분은 원화 강세로 수출가격에 대한 인상요인이 이미 발생하였으나, 수출가격인상이 바로 현지 소매가 인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칠레경기 침체에 따른 판매물량 감소를 우려, 급격한 수출가격인상은 자제하고 있음.

○ 철강

- 2002년 상반기중 대칠레 수출실적은 전년동기대비 증가. 그러나 하반기에는 수출 감소 전망.
- 철강 경쟁국인 브라질/아르헨티나가 현지화의 대미불 환율 인하로 수출가격경쟁력이 향상되어, 가격경쟁에서 한국산보다 우위에 있음. 특히 한국산 냉연강판, 형강, 파이프류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
- 더불어 한국원화의 대미불환율 상승으로 수출가격인상 요인이 잠재하고 있으며, 한국내 내수 활성화로 수출물량이 부족하여 금년 하반기 대칠레 철강수출은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된다.

6. 우리의 대응방안

가. 한/칠레 FTA 조속 체결

- 칠레에서의 자동차 경쟁국인 EU는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2003년부터 관세혜택을 받아 가격경쟁력이 제고되고,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또한 칠레와의 MERCOSUR 협정 및 환율하락으로 수출가격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있음.
- 현재와 같이 칠레페소의 대미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한국산 자동차가 수입관세를 부담하며 수입될 경우 한국산 자동차의 가격경쟁력은 경쟁국대비 열위에 있게 됨에 따라 막대한 수출 차질이 예상됨.
- 또한 한국에서 선적된 가전제품도 수출마진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판매 감소를 우려, 원화강세에 따른 수출가격인상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조속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관세부담 절감분만큼의 가격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

나. 멕시코, 브라질등 현지공장 생산품 수출 확대

- 한국산 브랜드 제품의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수출가격경쟁력이 있는 멕시코 및 브라질 현지공장 생산품의 대칠레 수출 확대 필요.
- 이 경우 중남미 현지공장 공급용 부품수출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한국의 전체수출에는 긍정적 효과.

다. D/A 거래 주의

- 한국의 중소기업형 제품 수출업체는 일부 바이어가 시장상황 악화 및 대금결제시점의 환율상승 문제 때문에 D/A 수입대금을 적시에 결제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기거래중인 바이어라 하더라도 2002년 하반기 중에는 D/A 거래를 자제할 필요가 있음.

콜롬비아

1. 최근 경제동향

-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를 시발로 브라질, 우루과이 등 남미공동시장의 경제. 금융권 균열사태는 주재국 콜롬비아까지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7.31일 발동된 우루과이의 은행업무 잠정중단 및 외화인출 및 대외 송금 제한조치 등으로 연유된 일련의 폭동사태 등에 대해 콜롬비아 정부.금융계 등은 깊은 우려감을 표시하며, 향후 불어닥칠지도 모르는 더욱 커다란 파장, 즉 브라질의 경제위기설에 예의주시하고 있음
- 작년말 아르헨티나의 디폴트(채무불이행)선언 이후에도 별다른 경제적파장을 감지하지 못했던 콜롬비아도 최근 중남미 위기론에 바짝 긴장하고 있음. 브라질의 디폴트선언 우려,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인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의 연쇄적 경제위기설 및 우루과이의 폭동사태, 미국다음으로 상호교역량이 많은 인근국 베네주엘라의 끊이지 않는 정치파동 및 경제혼동 등으로, 콜롬비아도 이제 중남미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태풍권에 대해 적극 방어태세로 돌입하고 있음.
- 우선 정부는 7월초 발표를 통해 연간 경제성장 목표를 2.5%에서 1.5%로 수정 하고 긴축정책의 일환으로 대부분의 공공사업투자를 연기한다고 밝혔음. 이에 대해 노동계는 공공사업투자연기가 실업률 증가 및 경기악화를 부채질할 것으로 심각한 우려의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으나, 콜롬비아정부는 현재 중남미의 위기론이 확산되고 최근 IMF가 중남미의 올해 전체경제성장율을 현 0.8%보다 낮게 수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 등을 상기시켰음.

동시에 중남미 위기론에 대한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콜롬비아의 경제를 지켜나가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경제정책순위는 "재정안정" 임을 재강조 하였음.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 각국 화폐의 미달러에 대한 평가절하율이 급속히 진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콜롬비아의 페소화도 가파른 절하율을 보이고 있음. 작년 연말부터 금년도 1/4분기까지 비교적 완만한 평가절하율을 유지했던 페소화는 4월이후 지금까지 큰폭으로 하락했음. 콜롬비아 중앙은행은 가파른 평가절하속도에 우려를 표명하고 US\$ 180백만을 시중에 풀었으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일부에서는 앞으로도 정부의 인위적인 "달러화 풀기" 정책은 별효과를 거두지 못할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또한 최근 달러화에 대한 강한 수요는 일시적 투기현상이 아닌 브라질, 우루과이등 중남미공동시장(Mercosur)회원국들의 경제위기 및 전 라틴아메리카로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제위기설에 대비한 준비움직임으로 분석하고 있음
- 한편 페소화 평가절하로 인해 콜롬비아의 수출업계는 반기는 표정이며, 현재의 페소화 평가절하는 지난해부터 과대평가되었던 페소화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대외수출과 관련해서는 하반기 수출이 다소 활기를 떨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미국의 안데안국가무역특례법(ATPA)이 8.1일 미의회에서 통과 되어 부시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특례법이 최종 서명될 경우 2006년까지 콜롬비아의 화훼, 의류, 직물, 참치, 석유 및 부산물, 신발류 등이 무관세로 수출되게 됨.
- 8.1일 콜롬비아통계청(DANE)이 발표한 실업률 통계를 보면, 금년 6월말기준 전체실업율은 16%로 작년동기 15.1%보다 높아졌으며, 잠재실업율도 작년 6월말 24.3%에서 1년 사이 35.5%로 급증하였음.

한편 노동계에서 바라보는 실업률은 공식통계보다도 훨씬 높은수치에 머물러 있다고 예측하고 있음

2.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사태 파급영향(전염유무)

- 아르헨티나의 채무상환중단선언, 우루과이의 은행업무중단 및 외화 인출 및 송금제한 등에 따른 일련의 폭동사태는 콜롬비아에도 파장을 미치고 있음. 우선 전반적인 중남미위기설의 확산에 따라 폐소화의 평가절하 곡선이 연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의 인위적인 관여도 별 효력을 끼치고 못하고 있음
- 주식시장의 경우 7월 1,253포인트로 시작한 주가는 7월 마지막날 1,187포인트로 마감, 약 3.9%의 하향세로 마감하였음. 금융권, 건설, 식·음료 등 대부분의 주가가 하락했고 우량은행으로 평가되는 Banco de Bogota(보고타은행) 과 최대유통체인인 Exicto(엑시토)의 주가만이 각각 1.75%, 0.15% 상승되는데 그쳤음.

3. 주재국 경제불안요인/경제위기 가능성

- 라티아메리카경제위원회(CEPAL)에서 8.1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콜롬비아의 경제향방은 브라질, 우루과이 등 남미국가권의 영향보다는 오히려 미국과 베네주엘라의 경제움직임이 더욱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즉 콜롬비아의 대외교역에서 제 1,2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베네주엘라의 경제전망에 대한 명암이 콜롬비아에도 그대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임.

[CEPAL 발표 2002년 라틴아메리카 경제전망치]

국가명	2002년 성장율 (%)
Argentina	-13.5
Brazil	1.5
Mexico	1.0
Uruguay	-5.0
Venezuela	-3.5
Paraguay	-1.0
Colombia	1.0
Bolivia	1.5
Chile	2.5
Peru	3.0
Ecuador	2.5
Panama	0.5
Costa Rica	2.0
Cuba	1.0
Haiti	-1.5
Guatemala	2.0
El Salvador	2.5
Honduras	2.5
Nicaragua	2.5
Dominican Rep	3.0
Latin America	-0.8

자료 : UN ECLAC

- ATPA(미국의 안데안국가 무역특례법)로 콜롬비아의 대미수출이 다소 활기를 찾을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미국전체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경제성장율도 바닥을 기고 있는 만큼 콜롬비아의 경기회복세도 큰 기대는 못하고 있음. 여기에다 베네주엘라의 끊이지 않는 정치.경제과동도 콜롬비아 경기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요인임. 참고로 5월까지의 콜롬비아수출은 작년동기 대비 4.1% 감소, 수입또한 7.3% 감소하였음.

- 콜롬비아의 금년도 1/4분기중 경제성장율이 금년도 수정목표치인 1.5%보다도 훨씬 낮은 0.5%에 머물고 있으며, 높은실업율로 인한 내수감소 및 낮은 산업생산성 등 또한 콜롬비아 경제회복에 대한 발목을 잡고 있음
- 설상가상, 반군게릴라들은 알바로 우리베 대통령당선자의 취임(8월 7일)을 앞두고 민간마을 약탈, 살인, 사회간접자본시설 파괴, 정치권에 대한 압력,협박공세 등을 강화하고 있어 사회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 얼마전 콜롬비아 재무장관의 말처럼, "콜롬비아가 게릴라와의 불필요 없는 소모전을 중단하고 경제회생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경우 연평균 5% 이상의 경제성장가도를 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감안하면, 현 반군과의 대치상태는 향후 콜롬비아의 경제불안요인중 가장 큰 골치거리라고 평가할 수 있음.

4. 대콜롬비아 수출동향 및 대책

- 2002년 6월말기준 한국의 대중남미전체수출이 약 4억4천만불로 전년 동기대비 거의 20%가 감소한 반면 대콜롬비아 수출은 오히려 25.7%가 증가한 1억5천만불로 호조를 보이고 있음.
- 우리의 주종품목인 자동차가 약 15%의 증가를 기록하였고, 가전제품도 50%대 이상의 상승세를 보인 것이 우리수출 증가의 버팀목 구실을 한 것으로 분석됨.

[콜롬비아 수입참고가격제 실시로 우리의 가전제품 수출 비상]

-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대콜롬비아 수출호조세는 하반기부터 제동이 걸릴것으로 전망됨. 콜롬비아 세무관세청(DIAN)은 7월26일 관보에 개재된 법령(Resolucion) 7010 및 7011을 통해 향후 자국으로 수입 되는 가전제품 및 신발류에 대해 "수입 참고가격제(Precios Estimados)"를 시행한다고 밝혔음(동 시행령은 7.26일부터 효력 발생)

[수입참고가격제 시행대상품목군]

- 가전제품
H.S 8516(다리미, 커피메이커, 토스트기, 샌드위치메이커, 마이크로웨이브오븐, 전기밥솥, 헤어드라이어), H.S 8509(믹서기, 과즙추출기, 식품용그라인더, 진공청소기), H.S 8414(선풍기), H.S 8527(미니컴포넌트, 대형컴포넌트, 라디오카세트, 포터블CD), H.S 8521(VHS, DVD, Home Video, 캠코더) H.S 8471(모니터), H.S 8527(카스테레오), H.S 8415(에어컨), H.S 8418(냉장고), H.S 8450(세탁기) 등 총 26개세부품목군에 적용.
- 신발류
신발부분품(H.S 6406류)을 제외한 모든종류의 신발류(H.S 6401-6405류 23개세부품목군)에 적용.

[우리수출에 미치는 영향]

- 백색가전의 경우 콜롬비아 자국산업이 비교적 탄탄한 기반을 유지하고 있어, 금번 수입가격참고제의 시행은 한국산의 대콜롬비아 수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것으로 예상됨.

- 특히 현지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가전3사의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3대품목의 경우 대부분의 수출가격이 콜롬비아 세관(DIAN)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저가격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어 수출자체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 현지진출 가전 3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의 백색가전 수출가격은 덤핑 가격 또는 언더밸류가 아니라 현지의 시장가격흐름에 맞춘 것으로서, 금번의 수입참고가격제 시행은 콜롬비아 자국의 백색가전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의 경우 가전3사의 대콜롬비아 수출가격은 콜롬비아세관(DIAN)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저가격보다도 일반적으로 30불에서 50불선까지 낮은편이며, 350리터 이상 대형냉장고의 경우 100불 이상까지도 차이가 나는 실정임.
- 우리의 대콜롬비아 수출주종품목인 가전제품에 대한 수출참고가격제 시행으로 우리의 하반기 수출전망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현지 진출한 가전3사는 주재국 경제인연합회(ANDI) 등을 통해 동시행제도의 불합리성 등에 대해 로비활동을 벌일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기타품목들의 경우,주재국 화폐인 페소화의 평가절하가 가속화되는 만큼 외상 거래금 환수 및 향후 바이어와의 대금결제방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임. (일례로 무역관 지사화업체 거래선의 경우 최근 페소화의 급속한 평가절하로 대금지불을 계속 연장하고 있으며, 일부 바이어의 경우 물품자체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대금지불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임.)

5. 참고: 콜롬비아 주요경제지수

가. 주요경제지수

	2001 (12.31)	2002(기준일 표시)
경제성장률(%)	1.6	0.5 (3.31)
평가절하율 (%)	2.8	14.21 (7.31)
외환보유고(US\$백만)	10,165	10,894.(7.24)
외채 (US\$ 백만)	39,780	38,926 (3.31)
주가	797.72	1,187.14 (7.31)
인플레이션	6.7	5.6(3.31)
수출 (US\$ 백만)	12,300	2,747 (3.31)
수입 (US\$ 백만)	11,997	2,577 (3.31)

Source: 중앙은행 (Banco Republica)

나. 환율 (US\$1에 대한 페소화 가격)

	January 31	February 28	March 31	April 30	May 31	June 30	July 31
2002	2,264.82	2,309.82	2,261.23	2,275.35	2,321.16	2,398.82	2,625.06
2001	2,240.80	2,257.45	2,346.57	2,346.53	2,324.53	2,298.85	2,298.27

* 평가절하율

	January 31	February 28	March 31	April 30	May 31	June 30	July 31
2002	1.07 %	2.3%	-2.1%	-3.03%	-0.1%	4.3%	14.21%

Source: 중앙은행 (Banco Republica)

파나마

1.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 남미 경제위기가 미치는 영향

- 최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 남미 경제위기는 점차적으로 파나마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임. 주로 파나마 콜론자유무역 지역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주변 중남미 국가에서 어떤 정치, 경제 위기가 생길 때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은 항상 콜론자유무역지역 중계무역 기능이며 이미 지난 아르헨티나 경제위기뿐 아니라 콜롬비아 및 베네주엘라 정치위기 등으로 콜론 수출입은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임.
- 2002년 6월 말 현재 콜론자유무역지역의 수입은 20억1천2백만불, 재수출은 23억7천1백만불로 2001년 동기 대비 11.3%, 6.5% 감소했음.
- 앞으로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지역의 회복이 계속 시간을 끌 경우 콜론의 남미로의 재수출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음.
- 콜론 이외에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사태의 영향을 받는 주요 분야는 파나마 수출업계임. 일례로 중남미수출은행(Banco Latinoamericano de Exportacion; Bladex)의 경우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로 금년 상반기 약 3억불에 달하는 순적자를 내고 자본금도 2001년 12월 31일 6억불 수준에서 금년 6월 30일 현재 2억9천2백만불 수준으로 감소
- 이 은행은 대외 거래의 50%를 아르헨티나 거래에 치중해 對아르헨티나 채권이 9억6천1백만불에 이르며 다른 은행의 경우에도 아르헨티나와 거래가 있을 경우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파나마 금융계의 경우 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와의 거래에 있어서 외상거래 기피, 바이어 신용조사 강화, 사태 관망 등 신중을 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2. 콜론자유무역지역 동향

- 남미 경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콜론자유무역지역의 수출입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수출입 감소가 반드시 남미 경제 위기 때문이라고만은 할 수 없지만 상당부분이 그로 인한 것이라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임.
- 콜론지역 수출입 추이는 다음과 같으며 2002년의 경우 1월-6월 및 6월 한 달 수출입이 2001년 동기 대비 크게 감소함

1월-6월 콜론 중계무역 누계

(단위 : 백만불)

구 분	1999.1-6	2000.1-6	2001.1-6	2002.1-6
수입	1,964	2,236.7	2,267.8	2,011.7
재수출	2,345	2,475.3	2,536.5	2,370.8

(정보원 : 콜론관리청)

6월 콜론 중계무역

(단위 : 백만불)

구 분	1999.1-6	2000.1-6	2001.1-6	2002.1-6
수입	348.4	386.6	419.7	336.6
재수출	400	451.6	426.5	379

(정보원 : 콜론관리청)

3. 경제전망

- UN중남미경제위원회(CEPAL), 국제통화기금, 파나마 기업계 등에 의하면 파나마의 금년 경제성장률은 0.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파나마의 경제성장률은 1999년 3.2%, 2000년 2.5%, 2001년 0.3% 등에 이른 것으로 파나마의 인구성장률이 2.9%임에 비추어 이같은 경제성장 둔화는 매우 우려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이러한 경제성장 둔화에 대처할 수 있는 당장의 대책은 없는 실정이나 이같은 저조한 경제성장세는 이미 1999년 미군 철수 이후 오랜 기간 누적된 국내경기 후퇴의 연속이지만 최근 콜롬비아 및 베네주엘라 정치위기, 남미 경제위기가 겹치고 있는 상황임. 실업률 또한 15%선을 지나 이미 20%에 육박하고 있음.
- 이러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파나마 정부는 여러 가지 사회기간시설 건설 등의 대안을 내놓고는 있으나 피상적인 미봉책인 듯한 느낌을 주며 구체적으로 프로젝트들을 언제,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는 분명하지 않음.

4. 금융권 움직임

- 총 영업의 53%를 국제영업에 치중하는 파나마 은행업계는 최근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 미국 경제회복 지연, 브라질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나름대로는 불안한 시기에 접어들고 있으며 2002년 상반기 중 총자산 규모가 347억7천4백만불로 2001년 동기 대비 7.5%나 줄어든 상황임.

- 이것은 주로 아르헨티나 등 남미시장 채권 회수가 지연되어 발생한 것으로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對아르헨티나 수출에 영업을 의존하는 Bladex의 경우 큰 타격을 받은 대표적인 경우임. 이에 따라 Bladex는 아르헨티나 등 남미와의 새로운 거래 관계 형성보다는 기존의 채권 회수에 더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나마 은행업계의 자산 규모를 전반적으로 줄어들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은행들의 유동성관리 및 구조조정 노력으로 파나마 내 은행끼리의 자금 거래도 역시 줄어든 추세임.
- 대부분의 은행이 신용을 제공해 주는 것보다는 저축, 예금 고객 유치에 더욱 열을 올림에 따라 2002년 상반기 저축유치액이 2001년 상반기보다 7.1% 증가했음.
- Bladex가 상반기 아르헨티나 거래 부도로 1억3천9백만불 손실을 보았으며 Bladex를 제외한 파나마 은행업계의 총이익은 1억6천4백만불로 매우 줄어든 추세를 보였음.
- 전반적으로 남미 경제 위기로 파나마 금융계도 매우 위축된 분위기이며 특히 Bladex의 타격은 파나마 은행업계에 큰 경종을 주면서 남미와의 거래에서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함을 일깨워 주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위기는 아직은 심각한 수준의 것으로는 인식하지 않으며 오히려 오늘날과 같이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보고 있음. 일례로 세계 일류의 경제대국 일본 은행들도 정부 지원을 받고서도 파산하는데 아르헨티나 경제위기 때문에 조금 거래가 침체된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는 것이 전반적인 반응임.

- 브라질, 멕시코 등 중남미에서 가장 비중이 큰 나라들의 경제상황도 별로 좋지 못한 판국에 파나마의 은행업계만 순풍에 돛 단 듯이 잘 되어 나가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전망이다.
- Bladex의 경우에는 그 대외 거래의 50%를 對아르헨티나 거래에 치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아르헨티나 위기로 인한 타격을 받았지만 다른 은행들의 경우 그 정도로 남미에 치중한 예가 없기 때문에 파나마은행업계 전체적으로 아르헨티나 위기로 인해 급격한 타격을 보거나 마비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한편으로는 對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 남미지역 업체와의 신용 공여, 신용 거래, 자금 대부 등에 있어서는 상당한 주의와 신중을 기할 것으로 예상됨.

5. 경제 불안 요인

- UN중남미경제위원회의 금년 경제성장률 0.5% 예측과는 달리 파나마경제재무부는 1.0-1.5%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으나 이러한 소폭 경제성장률 차이는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하며 파나마경제는 미국 및 세계 경제 침체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앞으로 파나마 경제가 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연간 경제성장률 5-6%선을 회복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대체 수출상품 개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관광산업 등 주요 서비스 산업 활성화 정책, 제조업지원, 자유무역협정 조기 마무리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
- 금년도 전반적으로 침체를 보이는 분야는 제조업, 건설, 유통업, 콜론자유무역지역, 파나마운하, 금융중개업 등이 될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은 상황을 볼 때 파나마의 경제는 이미 매우 어려운 시기에 봉착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뚜렷한 해결책이 마련된 것도 아니고 미국 및 인근 중남미 경제 회복이 경제 활성화의 우선 요건으로 보임.

6. 對파나마 수출 현황 및 대책

- 우리 나라의 對파나마 수출은 다음의 표와 같이 2002년 6월 말 현재 2001년 동기 대비 각 주요 품목에 걸쳐 전반적으로 줄어든 상황임.

(단위:천불, %)

품목명	2001		2002(1월~06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송기계	1,526,563	43.9	614,733	-28.3
가정용 전자제품	86,016	17.6	48,909	-1.6
철강제품	19,829	3.1	11,926	3.7
산업용 전자제품	16,970	295.4	10,538	-0.8
식물	18,824	-44.6	7,677	-29.1
고무제품	13,986	4.9	5,083	-30.5
산업기계	6,665	140.4	3,475	-32.1
기초산업기계	4,101	121.3	2,206	-20.1
섬유제품	6,849	-13.9	1,962	-41.6
신변잡화	2,418	74.3	1,464	32.4
정밀화학제품	2,036	59.8	1,155	3.2
기타생활용품	1,607	-5.6	914	18.1
보석및귀금속제품	1,033	337.7	822	240.8
전자부품	1,603	-12.7	706	-10.4
가구	1,315	-10.1	693	8.2

품목명	2001		2002(1월~06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산물	975	-52.1	516	-20.1
플라스틱제품	1,143	-31.7	402	-32.1
비철금속제품	763	47.6	355	-8.8
정밀기계	1,948	94.0	353	-79.2
석유화학제품	959	-31.5	328	-33.7
문구	875	26.9	223	-51.9
기타철강금속제품	190	-55.8	201	55.3
기계요소공구및금형	364	1.0	143	-44.8
제지원료및종이제품	282	-28.4	114	-31.1
섬유사	140	43.0	105	-10.1
농산물	290	-2.5	98	-57.8
기타기계류	68	-37.5	71	86.7
운동및취미오락기구	78	-39.5	42	-8.3
마찰및연마제품	63	-16.8	34	5.0
안경및콘택트렌즈	54	-	33	-26.8
의료위생용품	0	-	24	-
요업제품	134	-	24	-73.1
전선	94	-94.1	23	93.9
기타화학공업제품	16	-9.7	22	31.3
주화및컨테이너	140	-38.7	22	-80.3
기타잡제품	314	967.7	17	-94.4
인쇄물	182	292.7	14	-88.7
중전기기	87	-46.5	8	-86.9
약기	6	-81.4	3	-43.5
총계	1,718,989	37.9	715,440	-26.2

(정보원 : KOTIS)

- 파나마 주재 한국 대기업 지사, 현지법인에 문의한 바 이와 같은 수출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파나마 경제 및 인근 중남미 국가 경제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함. 왜냐 하면 인구 280만의 파나마 시장개척 노력만으로는 수요 증대에 한계가 있고 가장 중요한 콜론을 통한 인근국으로의 중계무역 진작이 더 큰 의미를 가지기 때문임. 비록 요즘 몇 년 동안 경기가 하락했고 최근에는 콜롬비아 및 베네주엘라 정치 불안, 아르헨티나 및 남미 경제위기 등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긴 하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콜론은 앞으로 상당 기간은 역시 중계무역지로서의 기능을 계속 할 것이 분명하므로 우리 업계의 적극적인 진출 노력이 요구됨. 비록 월드컵 개최로 국가이미지 자체는 높아졌으므로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부단한 수출 증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파나마정부 관계자 및 콜론자유무역지역(Zona Libre de Colon) 입주업체 대표자도 최근의 콜론시장 위축 및 중계무역 경기 악화가 계속되자 나름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8월 해외시장개척 출장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음. 이 사절단은 콜론자유무역지역입주업체협회(Asociacion de Usuarios de la Zona Libre de Colon) 회장, 부통령 Kaizer Bazan, 무역부차관 Meliton Arrocha 등이 참가하며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심이 다대함을 보여 줌.
- 콜론 업체의 해외출장이 가장 빈번한 시기는 4월임. 이는 콜론 중계무역의 가장 큰 대상품목인 일반 소비재, 생활용품 관련 대규모 박람회가 중국에서 많이 열리고 이를 이용해 중국, 홍콩, 대만 등을 여행하면서 1년치 오더를 하고 오기 때문임.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를 이용해 같은 시기인 4월 중에 기술, 품질 등에서 중국제품보다 탁월한 제품으로 콜론 바이어를 유치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베네수엘라

1. 베네수엘라 경제 불안요인

- '01년 GDP 성장을 2.7%로 견실한 성장세를 보인 베네수엘라 경제는 정부의 경제운영 미숙, 재정적자 심화, 급격한 외환시장 자유화, 정치 불안, 외국인투자 감소 등 내부악재를 견디지 못하고 금년도 GDP 성장을 (-)4.2%를 나타냄
- 정부에서는 2/4분기 GDP 성장율을 집계하고 있지만 1/4분기와 유사하거나 더 나쁠 것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국제 원유가가 급등하지 않는 이상 금년도 베네수엘라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
- 유력 경제지인 Veneconomia 최신호에서는 금년도 GDP 성장율을 (-)4.8%로 예상할 정도로 하반기가 좀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러한 마이너스 경제성장은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 중남미 인근국가의 영향이라기보다는 베네수엘라 내부분제인 것으로 조사됨
- 베네수엘라는 다른 중남미 국가와 달리 원유에 의한 경제 의존도가 높아 '01년 기준 국영석유공사(PDVSA) 단일기업의 세금 납부액이 정부재정의 45.6%, 국가수출의 76.1%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는 PDVSA 석유공사와 국제 원유가에 절대적인 의존을 보이고 있음
- '99년 들어선 Chavez 정부는 국영석유공사(PDVSA)의 수익을 이용하여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고 비석유분야를 육성하는 등 건설적인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운영해야 되지만 정치적인 기반을 공고히하기 위하여 포퓰리즘(Populism) 정책을 남발하고 정치적으로 경제를 운영함으로써 경제위기를 자초함

- 현재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는 이러한 관점에서 파악해야 되며 결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 등 인접국가의 경제위기가 파생하여 발생한 문제는 아님

2. 베네수엘라 주요 경제지수 동향

《 베네수엘라 주요 경제지표 》

지 표	단위	1999	2000	2001	200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경제성장률	%	(-)6.1	3.2	2.7	1/4분기 (-)4.2%			2/4분기(미발표)		
대미환율	BS/U\$	649.50	700.00	758.00	766.00	1,038.25	894.50	851.25	1,132.25	1,352.75
물가상승률	%	20.0	13.4	12.7	0.9(0.9)	1.8(2.7)	4.2(6.9)	2.1(9.0)	1.1(10.1)	0.4(10.5)
기준이자율	%	31.89	23.91	27.66	35.35	53.56	55.84	48.46	46.57	43.23
실업률	%	15.4	13.7	13.5	16.4	15.0	15.2	15.9	-	-
원유가	U\$/brl	16.04	25.91	20.21	15.82	16.31	20.25	23.82	22.20	21.84
외환보유고	억불	153.2	204.7	185.2	169.2	154.7	150.3	153.4	153.5	151.4
주가지수	IBC	5,418.0	6,825.3	6,570.3	6,293.9	6,958.4	6,875.2	6,712.6	7,371.1	7,657.2
대부이자율	%	31.89	23.91	27.66	35.35	53.56	55.84	48.46	38.49	35.15
무역	수출	208.2	330.4	267.5	3.8	4.3	4.9	4.1	4.8	-
	수입	132.1	154.9	173.9	13.1	10.4	-	-	-	-
	수지	76.1	175.5	93.6	-	-	-	-	-	-

- 주) 1. 경제성장률 2/4분기는 금일 현재까지 미발표하고 있으며 월별 경제성장률은 발표하지 않고 있음
2. 물가상승률속의 () 괄호는 누적치임
3. 원유가는 베네수엘라산임.
4. '02년도 월별 수출액은 원유 등은 제외한 수치임
(PDVSA는 연간으로만 발표하고 있으며 월별 수출액은 발표하지 않고 있음)

○ GDP 경제성장율

'02년 1/4분기 GDP 성장율이 (-)4.2% 하락에서 나타나듯이 본격적인 경기하락 및 불황 조짐이 보이고 있다. 금년도 (-)4.8%를 예상하고있을 정도로 내부에 의한 경기 회복가능성은 거의 없는 가운데 국제 원유가 상승 등 외부변수에 의해 GDP 성장율이 결정될 전망이다

○ 물가상승율

'01년 12.7%로 중남미 여러 국가중 비교적 안정된 물가상승율을 보인 베네수엘라는 6월말까지 10.5%로 다소 높은 물가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2월 외환자율화로 현지화 가치가 70-80%가량 하락하여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것으로 하반기에는 경기침체에 따라 상반기에 비하여 물가 상승세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대미환율(BS/US\$)

- '02년 2월 정부는 시장의 압력에 굴복하여 전격적으로 외환시장을 자율화하여 70-80%에 가까운 폭등을 보였다. 외환시장 자율화전에는 달러당 793.00BS였으나 '02. 8. 1일 현재 1,346.75BS임
- 최근 정부에서는 1,300BS대에서 환율을 안정화시키고 있어 당분간 1,300-1,400BS사이에서 움직일 전망이다
- 환율 폭등은 주변국 경제위기에 따른 영향이기보다는 그동안 누적되어온 현지화 고평가가 일시에 작용한 것으로 향후에도 주변국 영향보다는 외화 주요 수입원인 국제유가와 정부 당국의 개입강도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 외환보유고

'01년말 185.2억불 수준이었던 정부 외환보유고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자주 개입함으로써 7월 30일 현재 152.8억불로 32.4억불이 감소함. 경제학자들은 150억불 내외의 외환보유액이면 외부 경제충격이 발생하여도 어느정도 방어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Chavez 정부의 보유 외환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여 불안요인으로 남아 있음

○ 국제유가

- 베네수엘라는 OPEP 회담에서 배정받은 일일 원유 생산량은 2.495백만 배럴로 유가 평균 20-22불인 경우 연간(365일) 180-200억불 수입이 예정되어 있음
- 금년 정부는 예산편성시 기준유가를 배럴당 16불로 가정하였으나 국제유가가 상승하여 6월경 18불로 상향조정된 바 있으나 8월 현재까지도 배럴당 20불을 초과하고 있어 금년도는 국제유가에 의해 초과잉여금이 일부 발생할 것으로 전망
- 하반기 이라크 사태가 마무리되고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세로 돌변할 경우 베네수엘라 경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므로 베네수엘라와 거래할 경우 국제유가를 주의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음

3. 수출입 추이

- 원유 등 비전통적인 수출품을 제외한 베네수엘라 수출액은 '00년 55.1억불, '01년 50.1억불 등이며 '02년 4월까지 21.7억불을 수출하여 금년도에도 50-60억불은 무난히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수입은 '00년 145.8억불, '01년 164.4억불이며 '02년 2월까지 수입액이 23.5억불로 120-130억불을 예상하고 있다. 금년 2월 환율 자유화 실시 이후 현지화가 달러대비 급속하게 하락하고 있어 수입은 작년에 비하여 20-30% 축소 예상
- 베네수엘라 수출입 현황은 아르헨티나 등 주변국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내부적으로 현지화(BS)가 어느 정도에서 안정화되는지에 수출입은 영향을 받을 것임

4. 베네수엘라 중앙정부 재정문제

- '99년말 정권을 잡은 Chavez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위하여 정부 재정을 과도하게 집행함으로써 재정적자를 가져왔고 이러한 적자가 금년까지 누적되어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
- '01년 재정 적자누적이 GDP 대비 3.9%수준으로 양호하지만 금년에도 4-4.5%로 예상되는 적자분이 누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누적분이 쌓여가고 있음
- 베네수엘라 재정적자는 지속적으로 쌓여가면서 향후 갚을 수 있는 수단은 별로 없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 Chavez 정부는 국가신용도가 낮아 외채조달을 할 수 없어 민간시장을 대상으로 국공채를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였으나 '01년까지 민간부채가 80-90억불에 가까워 계속해서 국공채를 발행할 경우 민간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에 도달하여 금년에는 민간부문으로부터도 자금조달이 쉽지 않는 상황임
- 최근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지출억제, 조세개편 등을 통해 정부 수익 증대를 꾀하고 있지만 원하는 만큼 수익이 거양될지 의문시되고 있어 '03년 또는 '04년에는 재정적자가 현안사안으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됨

연도별 재정수지

(단위 : 십억BS, %)

재정구분	1998	1999	2000	2001
수지	△249	△1,326	△3,687	△4,643
세입	7,514	9,896	14,664	16,436
세출	9,948	11,221	18,351	21,080
재정적자/GDP	10.8	2.6	1.7	3.9

자료 : Veneconomia

<’02년 월별 재정수지 현황>

(단위 : 십억BS)

재정구분	1월	2	3	4	5	6	소계
수지	△81.6	△647.1	114.6	△349.1	-	-	△963.2
세입	1,055.4	867.4	1,167.8	1,503.9	-	-	4,594.4
세출	1,137.1	1,514.5	1,053.1	1,852.9	-	-	5,557.7

- 주) 1. 5월 및 6월은 미발표로 소계는 1-4월 합계임
 2. 자료 : Veneconomia 및 중앙은행

5. 향후 전망 및 문제점

- 매년 300-350억불 내외의 재정을 사용하고 있는 Chavez 정부는 세입보다 과다한 지출을 누적시켜 '01년말 기준으로 90-100억불의 재정적자를 가져와 금년과 내년도 정부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음
- 또한 Chavez 정부 수립이후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외채조달이 어려워지자 국공채를 남발하여 민간으로부터 끌어온 자금도 80-90억불에 달하여 정부자금 운영계획에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시킴
- 정부에서는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경로가 원활하지 않자 '01년 11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석유법(Organic Hydrocarbons Law)을 정부 주도로 전격 개정하면서 국영석유공사(PDVSA)로부터 과다한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함
- '01년 PDVSA 이익금이 115.2억불이었으나 과세금액이 123.0억불로 106.8%나 초과 징수함으로써 향후 PDVSA의 설비투자 축소 및 재무구조 부실화가 불가피할 전망. 금년도 PDVSA의 예상 이익금인 106.3억불도 동 석유법에 따라 정부에서 대부분 징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단위 : 억달러, %)

	'99	'00	'01	'02
매출액(A)	326.5	536.8	462.5	415.2
순이익(B)	83.5	179.5	115.2	106.3
세금(C)	72.5	127.5	123.0	100.5
세금/매출액	22.2	23.6	26.6	24.2
세금/순이익	86.8	71.0	106.8	94.5
사내유보금	11.0	52.0	-7.8	5.9

주) 1. 납부세금은 정부로 귀속되는 모든 자금임.

2. '02년도는 예상치임.

(자료원 : PDVSA 발표 및 Veneconomia 2002년 7월호)

- 베네수엘라 경제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PDVSA가 정부에 의해 부실화될 경우 향후 중남미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베네수엘라 경제 회복은 매우 어려울 전망
- 경제학자 및 기업인은 Chavez 정부가 근시안적인 견해를 가지고 손쉽게 재정을 확충하고 있으나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PDVSA는 국민의 기업인만큼 정부의 과도한 간섭으로 부실화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 또한, 이들은 재정 수입뿐만 아니라 지출면에서도 국민복지에 자금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경제가 건전해질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 건설, 중소기업 육성, 기술개발 등에 지출할 것을 촉구
- 매년 13-15%내외의 실업율을 기록하고 있어 금년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근로자 신분이 매우 불안하고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임
- 기업은 경기침체로 판매가 부진하자 환율상승 만큼 임금을 상승시키기보다는 해고, 임금축소 등을 계획하고 있어 근로자의 고용불안감은 심각한 실정임

- 이에 따라 주요 소비자인 근로자는 필수 불가결한 용품외에는 소비를 하지 않고 저축을 선택함에 따라 경기침체가 더욱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기업에서는 시장자율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어려워지자 정부를 상대로 외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관세인상, 반덤핑 심의 등 보호조치와 정부의 기업 지원정책 강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중임

6. 우리의 대응방안

- 베네수엘라의 경기침체는 환율 불안정, 고용불안, 낮은 생산성, 정치 불안 등 내부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주변국 경제위기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사료됨
- 하반기 또는 내년에도 선진국으로부터 외채조달, 국제유가 상승등 외부환경 변화없이 자체 노력만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낮아 경기침체 심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환경속에서 한국업체는 베네수엘라를 대상으로 대규모 투자는 당분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외상확대, 신용공여 등 위험성있는 거래는 삼가하여야 함
- 전국적으로 판매가 부진하고 있는 만큼 신용거래를 하고 있는 기존 바이어는 재무구조를 재점검하거나 현지 출장을 통하여 판매현황을 직접 조사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임

우루과이

1. 최근 우루과이 경제현황

- 우루과이는 US\$80억불의 재정적자와 연간 발생하는 경상수지 무역적자로 인해 외채상환 등의 외환부족 늪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음
- 우루과이는 아르헨티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데 지난해 부터 야기된 아르헨티나의 경제 및 금융위기로 인해 우루과이도 큰 영향을 받고 있음
- 아르헨티나의 경제 및 금융위기로 아르헨티나 자금 US\$30억불이 우루과이로 유입되었다가, 우루과이의 금융 위기설로 인해 일시에 동 자금이 인출되는 사태 발생
- 우루과이는 연간 수출 총액 US\$22억불을 수출하는데 그중 25%를 아르헨티나로 수출한 수출 대전의 미회수, 그리고 연간 1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을 하였는데 약 80%가 줄어든 20만명 밖에 방문을 하지 못한 것, 아르헨티나 자금의 일시적인 인출 사태 및 2000년말 부터 2회에 걸쳐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우루과이 주종 수출품인 소고기 수출의 급감에 따라 외환위기를 맞이하게 됨

2. 우루과이 주요경제지수

- 미화 달러의 교환 업무는 중단 상태이지만 정부의 8월 5일 현재 달러 환율을 보면 매수가가 22 Peso, 매도가가 28 Peso이나 실제 시중에서는 매수가가 22-24 Peso로 거래되고 있어 2001년 평균 환율 13.41 Peso 대비 약 64%의 평가절하가 이루어짐

- 우루과이의 수출을 보면 2002년도 7월 말 현재 US\$ 1,123백만불로서 전년 동기 대비 약 15% 감소를 보였으며, 수입은 US\$887백만불로 전년동기 대비 48% 감소를 보임
- 한편 한국과의 교역에서 자유무역지대 실적을 제외한 통계로 한국으로 수출은 2002년 7월말 현재 US\$ 3백만불로 7% 증가를 보였으며, 수입은 US\$ 17백만불로 전년동기 대비 24% 감소를 보임
- 금융위기 사태 이후의 교역 규모의 큰 폭으로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근본적인 수출은 증가하지 않치만 수입의 감소로 인한 무역수지는 다소 호전 될 것으로 전망됨
- 우루과이 외환보유고는 7월 30일 현재 US\$ 7억불이었으나 은행업 무가 중단된 시점에서 발표가 없으며, IMF 자금지원으로 외환보유고가 많아 졌을 것으로 예상됨

3. 우루과이 금융권 움직임

- 우루과이에는 총 21개 은행이 영업을 하고있는데 City Bank를 비롯한 15개 외국계 은행은 이번 사태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며, 모회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은행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
- 우루과이 시중은행은 Caja de Obrera 은행을 비롯 6개은행이 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이중 외환지불 준비금을 준비하지 못한 2개은행은 영업정지를 하게되고, 2개은행은 자본가들의 자본 증자를 권고 받고 있음. 현재 4개은행은 영업을 계속 중지하고 있으며
- 영업을하고 있는 2개은행도 정기적금 예금은 취소나 인출이 되지 않코, 현금인출기 및 당좌구좌에서 현지화만 5,000 Peso만 지불을 하고 있음

- 현지 우루과이 시중은행들은 20시간만에 통과한 은행법안에 따라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
- 통과된 주요 은행법안을 보면 2,000불 소액 예금은 현금으로 인출이 가능하며, 정기예금은 3년에 걸쳐 상환을 하는데 첫회에는 25%, 2차년도에는 35%, 3차년도에는 40%를 지급하는 것임
- 2개 은행 영업정지와 2개 은행 자본증자 등으로 실마리가 풀리게 되겠지만, 은행근로자 약 2,012여명이 은행을 떠나야 할 것으로 예상됨
- 그간 IMF는 우루과이 지원 협상에 소극적이었으나,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 공세로 2002년-2003년 동안 US\$ 38억불 지원을 약속 받은 상황이며, 8월 5일 현재 US\$ 15억불이 유입되어 긴박한 상황은 다소 진정세로 보이고 있음
- 지원되는 US\$ 15억불은 당좌 예금자와 현금 인출자를 위해 공급될 것이며, US\$ 4 억불은 문제가 되었던 4개 은행 지원자금으로 쓰여질 것으로 보고 있음

4. 우루과이 경제불안요인 분석

- 우루과이는 산업 기반이 취약하며, 주종 산업은 농축산임업인 1차 산업으로 수출 역시 주종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2000년말과 2001년 초에 2회에 걸쳐 발생한 구제역 발생으로 총 수출에 25%를 차지하는 소고기 수출이 급격히 줄어 들고 있음
- 우루과이는 아르헨티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데, 아르헨티나로의 수출 대전 미회수, 경제위기로 수입 큰 폭의 감소. 연간 100만 명의 아르헨티나 관광객의 80%가 줄은 20만명의 방문과 아르헨티나의 금융위기로 아르헨티나 자금 약 30억불이 일시적으로 유입되었다가 일시 인출에 영향을 받게됨

5. 우리의 대응 방안

- 불요불급한 공산품은 어쩔수 없이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조달물품 입찰에 관심을 보여야하며, 우루과이의 수입상과 수출상담시 사전 무역관의 조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 수출한 물품의 인수 기피 현상이나 L/C 상의 사소한 문제를 제기 L/C를 취소해 할려는 경우가 발생 할 것으로 보아 수입상과의 계약 이행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것임.
- 국내 경기 침체, 인프레 발생, 달러인출 어려움 및 은행업무가 원활치 못해 수출 물품의 수출 대전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바 원금 전액 회수가 안될시는 분할 회수를 모색하여야 함
- 수입상과 수출 상담시 수입상에 대한 신용 및 회사 내용을 파악하여야 함

과테말라

1. 과테말라 경제현황

- 과테말라 경제는 지난 1998년 4.7%로 최고의 GDP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작년에는 2.3%에 그쳐 3년 연속 둔화세를 기록하였음.
- 연도중에는 GDP성장율이 발표되지 않는 관계상 추측이 어려우나 금년들어 경제의 활력도와 성장률을 암시하는 경제활동지수(IMAE)는 금년 5월까지 평균 121.37을 기록, 전년동기간중의 120.73과 비슷한 수준으로 뚜렷한 경제회복 기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은행의 위축된 신용대출과 높은 이자율로 가계와 기업의 소비투자 심리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이며, 한편 주요 수출품인 커피의 국제시세가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최대 교역상대국인 미국경제의 침체로 인한 수요감소가 주 요인으로 지적됨.
- 산업회의소 등 경제계에서는 최근의 경제침체로 약 2,000여개의 업체가 폐업되거나 생산활동이 위축되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위기가 더욱 심각해 약 60%의 인력과 70%의 생산규모가 감축되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실질적인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고 있음.
- 과테말라 중앙은행은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전년도와 같은 2.3%로 예상하고 있음.

2.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사태의 파급효과

- 현재까지 인근 중남미국의 위기사태로 인한 영향은 감지되지 않고 있음. 작년 7월의 아르헨티나 외환위기때에도 과테말라와 중미국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었음.
- 과테말라의 주요 교역 및 투자상대국은 미국, 멕시코와 인근 중미국(파나마,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들이며,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과의 교역규모나 투자관계는 크지 않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음.

3. 과테말라의 주요 경제지수 동향

가. 환 율

- 8.2일 현재 게찰화의 대미환율은 Q7.80/US\$로서, 이는 작년도 12월말 Q7.99/US\$ 보다도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음.
- 이는 전세계적인 달러화 약세 추세와 함께 수출감소에도 불구하고 외환의 유입 증가로 금년 상반기내내 게찰화가 달러화대비 강세를 보였음.
- 수출업자들은 오를 것으로 예상되던 환율이 연중 계속 낮은 상태를 보이자 정부에 대해 대책을 촉구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에서도 이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임. 중앙은행측은 전통적으로 7월 이후에는 연말을 대비해 수입품 내지는 서비스품목 구입이 시작되고 수출로 들어오는 외화유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세로 반전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갑작스런 환율의 등락에 대비해 달러를 팔거나 사는 전략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나. 수출입 현황

- 금년 상반기 수출액은 9억7천만불로 전년동기대비 23.6%의 급감세를 나타냈음. 그러나 수출감소의 주요 원인은 주요 수출품인 커피값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그간 꾸준한 수출신장세를 보여왔던 의류의 경우도 미국의류소비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금년부터 감소세로 반전하는 등 외부 시장여건이 악화되었기 때문임. 또한 상반기중 상당기간 달러화에 대한 께찰화의 강세가 계속되 수출품목의 대외경쟁력이 약화된 것도 하나의 이유로 지적됨.
- 한편 수입액은 상반기중 전년동기비 3.5%가 감소한 26억불을 기록, 전반적인 경제침체로 수입수요가 살아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이에 따라 무역적자는 전년동기비 약 9% 늘어난 16억3천만불을 기록하였음.

다. 외환보유고

- 수출액의 급감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고는 오히려 전년동기비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음. 금년 6월말 현재 외환보유고는 22억8천만불로 전년도 6월말 18억2천만불에 비해 4억6천만불이 늘어났음. 그러나 작년말의 23억5천만불에 비하면 7천만불 정도 감소한 수치임.
- 수출감소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고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이유는 금리차를 이용한 엘살바도르로부터의 달러화 유입과 께찰화 강세에 따른 중앙은행의 시중 달러화 매입, 그리고 일부 비정상거래(마약 등)로 인한 외화유입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라. 물 가

- 금년 상반기까지 물가상승율은 4.39%를 기록하여 전년동기간중의 4.17% 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음. 이에 따라 금년도 물가상승율은 정부의 억제목표인 6%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3년내 최고 수준을 보였던 전년도(8.91%)와 비슷한 상승률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
- 한편, 금년도 물가상승의 원인은 연초 소비자물가 산정기준을 현실화했기 때문이며, 그외에도 작년도 부가가치세와 영업세의 인상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됨.

마. 주 가

- 과테말라의 증권시장은 Bolsa de Valores Nacional과 Bolsa Agricola Nacional의 2곳이며, Bolsa de Valores Nacional에 상장된 기업수는 불과 약 14개 정도에 불과하여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함.
- 현재 주가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지수는 발표되지 않기 때문에 파악이 어려우나, 2001년 거래량은 62,592백만 께찰을 나타냈으며, 금년 8월1일까지의 거래량은 35,019백만 께찰로 전년대비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4. 과테말라 경제 불안요인 분석

- 과테말라는 최근 3년여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경제하강으로 소비투자가 위축되고 한계기업의 폐업, 생산활동의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따라 실업자가 증가하고 사회범죄가 그치지 않고 있어 사회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현정부의 각종 비리 스캔들이 이어지면 정부에 대한 민심도 크게 이반된 상태임.

- 과테말라는 매년 최소한 인구증가율(약 2.7%)을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여야 하는데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빈곤의 심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그간 커피, 설탕 등 주요농산물 재배 수출업자들이 국제시세 하락과 국내 인건비의 상승 등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도산 또는 폐업 등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과도한 부실채권을 안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신용대출이 위축되고 이자율이 치솟는 등의 부작용을 낳았음. 아직까지 경제의 회복이 가시화되지 않음에 따라 높은 이자율도 쉽게 꺾이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가계와 기업등 경제주체의 활동도 크게 위축된 상태임.

5. 대 과테말라 수출현황 및 대책

- 우리나라의 대 과테말라 수출은 금년 6월까지 총 22억2천만불을 기록, 전년동기비 9.9%의 감소세를 나타냈음.
- 수출감소의 주요 요인은 전체수출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는 직물(원단) 수출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임. 특히 전체수출의 60%를 점유하는 편직물의 경우 전년동기비 4.2% 감소하였으며, 폴리에스터 직물의 경우는 약 39%의 급감세를 보였음.
- 수출원단의 주요 수요처는 현지에 진출한 한국 의류봉제기업들로서 미국 의류소비의 감소와 함께 CBI 프로그램을 활용한 미국산 원단사용의 점진적 증가 등으로 작년부터 수입액이 감소세로 바뀌었음.
- 한편, 한국산의 인지도가 높은 자동차와 무선통신기기 등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합성수지, 종이제품, 강판, 섬유화학기계 등은 원화환율의 하락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로 고전하고 있음.

6. 우리의 대응방안

- 현재의 남미 경제위기가 과테말라와 중미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위기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멕시코 등 여타 중남미국으로 확산될 경우 상당한 과급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높음.
- 이 경우 가뜩이나 위축되어 있는 제도금융권의 대출을 더욱 어렵게 하여 경제가 위축되고 이자율과 환율 상승 등 거시경제 지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바이어의 수입원가 상승과 함께 수출대금 신용사고 등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추이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우리나라의 대과테말라 주종 수출품인 원단, 원사 등은 현지진출한 대미 수출기업의 수출용 원자재로서 무세 통관되고 있으므로 환율변동이나 수입가격 상승 등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단기적으로 남미 경제위기로 인한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오히려 현지화의 대미환율 상승은 현지 진출기업의 채산성에 도움을 주고 있음.
- 그러나 대 과테말라 수출은 미국의 경제동향과 진출기업의 의류생산 오더추이, 그리고 진출기업의 원자재 쏠림패턴에 많이 의존하고 있음. 현지 진출기업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의류오더는 줄지 않았으나, 불경기를 타개하는 방안으로 미국내 바이어와 현지 진출기업들이 미국산 원자재를 사용하는 CBI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있어 점차적으로 한국산 원단과 원사 사용이 줄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최근 원화환율의 하락으로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그간 꾸준한 신장세를 보여온 기계류, 종이제품, 고무제품, 철강제품 등도 수출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만큼, 1차적으로 수출가격 유지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봄.

- 또한 남미 경제위기가 심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과테말라와 중미지역의 경제상황을 면밀 검토하고, 거래시 신용있는 거래상대와 안전한 결제방법을 함께 강구해 보아야 할 것임.

<참고자료 : 2002년 상반기 과테말라 주요 경제지표 동향>

구 분	2001년	2001년 상반기	2002년 상반기
경제활동지수(IMAE)	121.52 (연간평균)	120.73 (5개월평균)	121.37 (5개월평균)
물가상승율(누적, %)	8.91	4.17	4.39
이자율(은행대출, %)	20.0	19.0	17.9
수출액(U\$백만)	2,413	1,269	970
수입액(U\$백만)	5,607	2,688	2,595
무역수지(U\$백만)	-3,194	-1,489	-1,625
실업율(노동부 추정, %)	50	46	50
외환보유고(U\$백만)	2,347	1,816	2,285
대미평균환율(Q/U\$)	7.99	7.79	7.92

자료원) 과테말라 중앙은행(Banguat)

도미니카(공)

1. 도미니카(공) 최근 경제분석과 전망

- 도미니카(공)은 금년 1/4분기 현재 완만하나마 안정적인 경제 회복세를 나타내고있음
 - 2000년까지 5년연속 연간 7%내외의 높은 경제성장세를 나타내던 주재국은 2001년 미국의 경기침체로 1.9%에 달하는 침체현 상을 나타냈으나 금년 1/4분기 현재 4.3%의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며 경기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음
 - 최근까지 지속되고있는 미국경기 침체여파로 완전한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정보통신, 건축, 관광등 주요산업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나타내며 경제성장을 주도하고있음

-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사태 파급효과
 - MERCOSUR 지역에서 발생한 금융불안 사태와 관련해서 현지 주재국내 금융권이 특별한 영향을 받고있지는 않음
 - 이는 주재국 경제 및 금융권이 대부분 미국과 연계되어있는 관계로 남미지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 여파에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지않고있는 것으로 보임

- 주재국 주요 경제지수 동향
 - 환율
2002년 6월말현재 중앙은행 고시환율은 1\$당 17.76페소로 2001년말 16.97페소 대비 4.6% 상승하였으나 년중 변동동향을 감안해 볼때 전체적인 상승세로 금융위기로 인한 특이한 동향은 없음

- 물가수준
 금년 6월말현재 물가상승율은 4.93%로 다소높으나 환율상승 및 경제성장수준을 감안해 특이동향은 없음
- 외환보유고
 2002년 6월말현재 순외환보유고는 7억불로 2001년 년말 9.4억 불대비 25% 감소하였으나 년말 해외교민의 송금으로 외환유입이 크게 늘어나는 주재국 외환동향을 감안할 때 특이한 감소세로 볼 수는 없음
- 대외거래
 1/4분기 현재 수출 1,261백만불(-5.1%), 수입 2,078백만불(-2.6%)을 나타내며 전년동기대비 다소 부진세를 보이거나 이는 미국경기 침체에 따른 대미 교역부진에 의한 것으로 여타분야에 대한 거래는 여전히 활발히 추진되고있음

○ 주재국 금융권 움직임

- 남미 금융불안에 대한 특이한 대비 움직임은 없으며 연중 환율변동추이에 따라 최근 상승세를 나타내고있는 대미 환율관리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고있음
- . 중앙은행에서는 환율상승 추세에 따라 정책적인 달러 매도등 환율관리 정책을 추진하고있으나 이는 미국경기 침체에 따라 관광객 감소, 미국으로부터의 송금감소, 대미수출부진등 일반적인 경제동향에 따른 것으로 주재국 금융권의 남미 금융불안에 대한 특별한 움직임은 없음

○ 주재국 경제불안 요인 분석

- 금년 1/4분기 현재 안정적인 경제성장세와 외국인 투자의 지속적인 유입세 (6월말현재 2.1억불, 전년동기대비 6.0% 상승) 등을 감안해 볼 때 특이한 경제불안 요인은 없음
- 그러나 미국의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관광수입, 대미수출, 송금입금 등 주요 외환공급원이 부진세를 나타내면서 시중 자금이 다소간 경색되어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내재하고있음

2. 대 도미니카(공) 수출현황 및 대책

○ 대 주재국 수출현황

- 2002년 6월말현재 대 주재국 수출입 동향은
· 수출이 56,468천불 (-28.4%), 수입이 6,289천불(-68.3%)로 전년동기대비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있음
- 대 주재국 수출부진은 전체 수출물량의 약 50%를 점하고있는 섬유류 투자진출기업을 통한 대미우회수출이 미국경기침체로 급격히 감소되면서 섬유류 원부자재 수출이 급감한 때문임
· 동 섬유류 수출은 하반기부터 현지 투자기업의 경기가 활성화추세를 보임에 따라 다소간 회복될 것으로 보임
- 특히 최근 수주에 성공한 국산 상용차 7천7백만불 공급이 금년 하반기중 수출될 것으로 보여 수출감소세는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우리의 대응방안

- 주재국의 경제불안에 따른 교역감소 전망은 크지 않으나 주재 국내 섬유류 중심 투자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추세에 있어 투자기업의 채산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전망임에 따라 향후 투자기업을 통한 대미 우회수출이 급격하게 감소되면서 대주재국 수출전망은 밝지 않은 실정임
- 이에따라 주재국 실정에 맞는 마케팅으로 성과를 거두고있는 플랜트 프로젝트 및 대 정부 대형 프로젝트 수주노력등 전략 마케팅 분야의 다양화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임. 아울러 섬유류에 집중되어있는 현지 투자진출이 정보통신, 건축, 건축자재, 자동차부품생산, 관광, 판매법인 설립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